



인천이 '세계일류 명품도시'의 날개를 펼칩니다

인천의 도시브랜드는 'Fly Incheon'입니다.

'F·L·Y Incheon'은 Future(미래로) Leap(도약하는) Young(젊은) Incheon(인천)을 표현한 것으로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국제항구가 있는 인천이 동북아 허브도시로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Incheon's city motto is 'FLY INCHEON'. F·L·Y stands for Future, Leap, and Youthful, describing the future goals and present achievements of the city. The achievements include Incheon's state-of-the-art airport, seaport, and its growth towards becoming the hub of Northeast Asia.



굿모닝인천

2007. 2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힘찬 함성 바다너머
아시아 대륙으로 ...



노희정 作 · water color on paper · 41.0×31.6cm · 2006

문학산 자락 끝에 세워진 월드컵경기장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대~한민국!’의 함성이 지금도 하늘 높게 울려 퍼짐을 느낀다. 제물포항이 근대화의 문을 열었다면 문학경기장의 우뚝 솟은 돛대들의 모습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인 그 이상의 문이었으리라. 서해 바람이 스치는 이곳의 풍광과 잘 어우러진 이들 흰 돛대의 나래 짓에 나의 수채화 붓은 반할 수밖에 없었다. 상쾌하고 빠른 나의 붓놀림의 작용은 이미 형태를 떠나 문학스타디움이 내재하고 있는 인천의 미래와 꿈을 더 높게, 하늘 높이 부상토록 지어내는 것이었다. - 노희정 -



Good Morning
INCHEON



COVER 화도진 공원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2월 10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2 인천, 그림되다 | 문학경기장
- 04 2014 인천아시아게임 | 마니산 기원제
- 06 가보니 좋았더라 | 대이작도
- 10 르포 | Songdo ConvensiA(송도컨벤시아) 건설현장
- 13 브리핑 |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 14 인천시청 종합민원실 | 시민감동 100%의 무한 프로젝트
- 16 아이들과 함께 동네한바퀴 | 인천본부세관
- 19 포커스 |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기공식
- 20 프리즘 | 2007 시정방향 테마 10
- 22 파이팅인천 | 2007 인천개최 국제경기대회
- 24 굿인천 굿뉴스 |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시로 발돋움 외
- 28 경제자유구역 소식 | 송도국제업무단지 착공 외
- 30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 사랑을 지키려면 섬은 분명하게
- 31 Healthy life 건강백세 | 응급의료
- 32 알바가 ‘알바’를 말한다 |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현장
- 34 모닝커피 한 잔 | 총천연색 거짓말
- 35 김치찰칵
- 36 사진집 | 최병관의 ‘마지막 소금밭 소래염전’
- 38 이달의 공연 | THE 이은결 매직콘서트 Magic is my life 외
- 40 문화마을 순례 | 국악실내악단 팔음(八音)
- 42 자매도시 우호도시 ② | 일본 기타큐슈시
- 43 인천시민은 국제시민 | Occupied와 Vacant
- 44 인천이 담긴 詩 ② | 최성연의 인천각(仁川閣)
- 46 꿀돌이·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② | 자유공원
-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인천지하철 여성 기관사 김현정 씨
- 52 독자글마당 | 이번달 주제 ‘저금통장’
- 54 Info Box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모집 외
- 58 신(新) 인천여부사시사 | 맛이 좋아 물고기 중 넘버원 ‘송어’



하늘이시여, 우리 염원 들어주소서...

유치에 대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을까. 지난 1월 12일 오후 단군 왕검의 열과 정기가 서려 있는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천제(天祭)가 열렸다.

제관을 맡은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신용석 인천아시안게임유치위원장, 안덕수 강화군수 등은 관복과 관모 등 전통 제례 복장을 갖추고 정성스럽게 기원제를 봉행했다.

200여명의 시 간부 공무원과 등산객도 함께 참석한 이 행사는 개식에 이어 국민의례, 칠선녀 성무, 봉행, 폐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상징하는 2014개의 오색 풍선을 하늘 높이 날려 보냈다. 유치를 자신하는 우렁찬 함성 소리가 마니산을 넘어 황해바다로 멀리 퍼져 나갔다.

2014 아시안게임 개최지는 오는 4월 16~17일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 45개 회원국의 표결로 결정된다.

현재 인천과 인도 델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유치위는 기원제 지내는 모습을 비디오로 담아 OCA 총회 기간 중에 상영해 우리시의 의지를 회원국 대표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기원제를 마친 후 유치위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중국 장춘(長春)에서 열린 '제6회 동계아시안게임' 현장을 방문해 '인천 유치' 대세를 굳히기 위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였다. 🌟



대
이
작
도

섬을 섬...

그 도도함이 좋다

섬은 언제나 도도하다. 함부로 제 품을 내주지 않는다. 들고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한데,
하늘이 도와야 그곳에 다다를 수 있다. 비보다 무서운 건 바람. 바람보다 무서운 것이 안개다.
해무(海霧)는 발라드 가수 발밑에 뿌려주는 드라이아이스처럼 섬을 신비스럽게 보여주는데는
한 몫 하지만 바다에 안개가 피었다하면 꿈쩍없이 발이 묶이고 만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바람에 떠밀린 외딴 섬

1월에 걸맞지 않은 따듯한 날씨가 며칠째 계속 되자 바다에는 안개꽃이 피었다. 배는 한동안 스크루를 돌리지 못했다. 바람이 안개를 밀어내고서야 배가 떴다. 이번엔 바람이 만들어 낸 배멀미 덕분에 섬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겨울바람은 섬을 더 외딴 곳으로 밀어 내고 있다.

1시간 30분 넘게 파도를 헤쳐 나가서야 비로소 섬의 품에 안겼다. 대이작도 선착장에 내린 사람은 고작해야 서너명, 맞아주는 이도 없다. 철지난, 아니 철이른 섬마을 포구의 일상이다. 여름 같은 제철에는 배가 도착할 때마다 민박집 주인과 방문객들이 저마다 이산가족 만나듯 시골벽적하게 상봉하는 곳이다.

섬마을의 모든 길은 한 길로 통한다. 나있는 길로 그냥 돌아보면 어느새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선착장에서 반대편 끝에 있는 계남마을까지는 고작해야 4km 정도, 걸어도 반나절이면 된다.

대이작도에는 부아산과 소리산 두 봉우리가 솟아있다. 아기 업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부아산에 오르면 섬의 자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마을을 안고 있는 부아산은 산세가 그리 험하지도 않고 정상 바로 밑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어 꼭대기까지 쉽게 다다를 수 있다.

산허리에 놓여있는 쿠션 좋은 고무계단을 오르면 정상에 이르는 구름다리를 만난다. 길이

70m의 빨간색 철재 다리는 출렁거림이 없어 구름다리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섬에 구름이라도 걸치면 말 그대로 구름 위를 걷는 다리가 된다.

정자가 세워진 정상에 서니 사방에 막힘이 없다. 동생섬 소이작도, 이웃섬 승봉도와 자월도, 그리고 덕적도와 그 형제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쪽빛 바다 위에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섬 사이를 오고 가는 어선들의 모습이 한가롭다.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이 섬에는 해적들이 살고 있어 한때 ‘이적도’ 라고 불렸다고 한다. 해적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훌륭한 조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남쪽으로 눈을 돌리니 신비한 모습에 입이 절로 벌어진다. 바다 위에 커다란 고래가 누워 있는 듯하다. 풀등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달이 기울고 차는 것에 따라 솟았다 가라앉았다 하는 넓이 30만평의 거대한 모래섬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썰물 때 물이 빠지면서 하루에 두 번 제 모습을 보여주는 섬 아닌 섬이다. 대이작도 부아산에 올라 풀등의 전체 모습을 봤다는 것은 쉽지 않은 행운을 잡은 것이다.

철새 따라 왔다 간 총각선생님

산을 내려와 해변으로 가던 중 고려 때부터 있었다는 삼신할머니약수터에서 약수 한 모금으로 목을 축였다. 아 이 없는 여인이 이 물을 마시면 태기를 느낀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는 약샘이다. 약수터는 부아산 줄기 끝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부아산에는 도라지, 더덕, 둥글레 등 온갖 산나물이 지천인데 이러한 것들이 영험한 물을 만드는 모양이다.

이 섬에는 4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작은풀안, 큰풀안, 목장불 그리고 뛰넘어라고도 불리는 계남해수욕장이 있다. 작은풀안은 고운 모래해변의 길이가 300m 정도 되는 삼태기 모양의 작은 해수욕장이다. 바로 앞의 풀등 모래섬이 파도를 막아주는 덕분에 물결도 잔잔한 편이다. 이웃한 큰풀안은 대이작도의 대표 해수욕장이다. 길이 1km 정도 되는 비교적 큰 해변이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푸근하다. 잔파도에 햇빛이 난반사되면서 은빛 물결이 바다에 가득하다. 겨울바다를 통째로 즐기는 연인 한 쌍이 한가롭게 물수제비를 뜨고 있다.

섬 끝단에 있는 계남마을로 갔다. 이곳에는 1967년 당시 인기여배우 문희가 출연했던 ‘섬마을 선생’의 주무대인 계남분교가 있다. 학교가 이렇게 작을 수가 있을까. 아담한 교실과 교정이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다. 오래 전에 문달은 학교의 모습은 이제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흑백 사진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얼마 전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세운 기념표지석만이 촬영지임을 증명할 뿐이다. 섬마을 처녀 문희가 총각선생님을 태우고 떠나는 배를 바라보며 눈물짓던 소나무만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서 있다.



섬 일주를 마치고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고갯길에서 남쪽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풀등이 훌연히 사라진 빈 바다. 그 위를 갈매기 한마리 척후병 삼은 어선 한 척이 이른 봄 맞으려 먼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



가는 길

인천연안부두에서 쾌속선 우리고속훼리(887-2891~5)를 타면 되는데 이 선박은 차량 승선이 불가능하다. 진도운수(888-9600)에서 운행하는 선박은 차량 승선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도 차를 싣고 갈 수 있는 배(대부해운 886-7813~4)가 있다. 최근 시설 좋은 펜션급 민박집들이 많이 생겨 숙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의_자월면사무소 ☎ 833-6010~1)

◀ 신비의 모래섬, 풀등

지평선과 수평선이 함께 있는 곳. 풀등은 신비의 모래섬이다. ‘풀치’ ‘벌등’ ‘고래섬’ ‘모래섬’ 등 딱히 정해진 이름이 없듯이 지도에도 섬의 존재는 없다. 완전히 솟으면 남북으로 1km, 동서로 2.5km의 크기로 너댓 시간 동안 하루 두차례 제 모습을 드러내는 ‘시한부’ 섬이다. 최근 대이작도의 명물로 알려지면서 순전히 이 풀등을 보기 위해 섬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대이작도 선착장에서 통통배를 타고 10분이면 신비의 땅에 상륙할 수 있다. 성수기에는 배삿이 1인당 5천원 정도지만 비수기에는 배를 전세 내야 한다.

2008년 세계를 전시한다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한 마리의 독수리인가,
날개를 펼친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활처럼 휘어있는 하얀 파이프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대를 닮은 듯도 하다.
이곳에서 인천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 마리의 새가 비상을 꿈꾸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마천루를 비웃다

하루가 다르게 쪽쪽 뻗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핑음은 오가는 이의 귀를 어지럽힌다. 네모반듯한 모습으로, 때로는 각이 진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는 마천루를 비웃기나 하듯 15만5천여㎡ 너른 대지에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처럼 웅크리고 앉은 송도컨벤시아는 주위를 둘러싼 똑같은 모습의 고층 건물들과는 사뭇 비교가 된다.

1월 중순에 찾아온 송도컨벤시아는 뼈대를 갖추고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난

2005년 3월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이래 공정을 32%에 불과하지만 뾰족한 새의 부리를 닮은 듯한 앞모습이나 둥근 곡면의 천장은 이미 상상의 나래를 펴기에 충분했다.

송도컨벤시아는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될 컨벤션센터의 이름이다.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우리시는 외자유치를 통해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의 합작법인)와 2003년 10월 계약을 체결해 컨벤션센터 건립에 들어갔다.

이곳은 송도 앞바다를 메워 바다를 육지로 '상전벽해' 시킨 곳. 때문에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 공사를 맡은 포스코건설은 터파기 후 갯벌에 힘을 주기위해 35m의 파일을 박아 땅을 단단하게 다졌다. 그렇게 땅을 다지고 기초를 마련하는데 다른 공사보다 공을 더 많이 들인 터라 언뜻 보면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는 듯도 보인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송도컨벤시아 건설이 순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던 지난해 겨울은 추운 날이 많은데다 갯벌을 휘감아 도는 매서운 바닷바람이 일손을 놓게 만들곤 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철골공사는 구조물의 상부와 하부의 바람속도가 다르면 조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속도가 12% 이상일 경우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해야한다. 하지만 올해는 한겨울에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는 날이 거의 없다. 하늘도 도와주고 있는 셈.

장인의 손길을 담다

부지면적 155,960㎡, 연면적 52,480㎡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송도컨벤시아는 2008년 4월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2008년에 개관하게 된다. 8,390㎡의 전시장면적에 450개의 부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의장에는 최대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 8개 국어를 동시에





송도컨벤시아로 불러주세요~

송도 컨벤션센터가 문패를 달았다. ‘Songdo ConvensiA (Songdo Convention of Asia)’라는 공식 이름을 얻게 된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주체인 NSC, 운영과 마케팅을 담당할 인천관광공사 등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여론조사와 전문가 평가 등 10단계로 나누어 철저한 계획과 기준 속에서 송도컨벤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송도컨벤시아는 동북아의 미래를 이어주는 고품격, 최첨단 컨벤션센터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역명과의 연계성, 고급스런 이미지, 편리한 발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송도컨벤시아는 각 기관들이 서로 달리 불러왔던 명칭상의 혼란을 접고 공사 과정에서 초현대적이고 독창적인 간판과 안내표지판 설치, 각종 홍보물에 공식명칭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통역할 수 있도록 설계돼 국제회의나 연회를 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 현장사무소에서 내려다보니 군데군데 놓여있는, 웬만한 어른 둘 셋이 둘러서야만 겨우 손이 닿을 듯 커다란 파이프들은 제 소임을 완수할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차렷 자세로 정렬하고 있는 듯하다. 이 파이프들은 송도컨벤시아의 뼈대가 될 ‘물건’들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송도컨벤시아는 기둥이 없는 설계구조상 입체적인 부자재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작은 틈이나 어긋남도 용납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대제철에서 파이프를 생산한 후 꼼꼼한 가조립과 해체 과정을 거친 후에 이곳 현장으로 모셔오고 있다.

송도컨벤시아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설계를 맡은 미국의 KPF와 한국의 범건축은 배를 뒤집어놓은 듯도 하고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나란히 연결해 놓은 듯도 보이는 독특하고 진취적인 디자인으로 세계 어느 곳보다 멋진 컨벤션센터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이 포스코건설에 의해 차츰 완성돼 가고 있는 중이다.

철근공사가 끝난 사무동은 곧 외장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4월이면 철근공사를 모두 끝내고 가장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지붕을 올리는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독특한 디자인의 ‘압권’ 이랄 수 있는 지붕을 만들 때 적용되는 ‘3차원 곡면트러스’는 우리나라 건축기술을 한 단계 올려놓는 시도다.

매일 현장에 투입되는 130명의 작업자들은 명품을 만드는 장인의 손길처럼 세심하고 꼼꼼하게 공정 하나하나를 진행하고 있다. 어려운 작업인 만큼 고생도 따르지만 인천의 명물, 아니 아시아의 명물로 자리잡을 송도컨벤시아를 위해 한겨울 바닷바람에도 굶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이렇듯 송도컨벤시아는 천, 지, 인의 도움으로 2008년 그 위용을 드러내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2009년 도시엑스포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

■ 주요 국제컨벤션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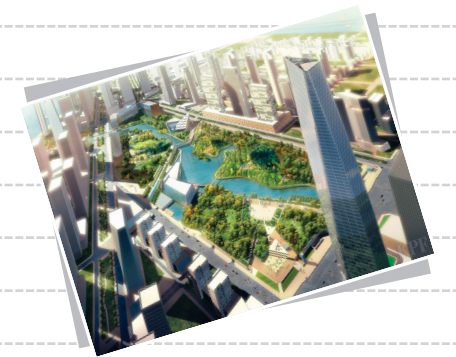
전시장명	개장년도	부지면적	전시면적
COEX(서울 삼성동)	88년 9월	106,612㎡	36,027㎡
KOTREX(대전)	95년 5월	29,195㎡	4,200㎡
SETEC(서울 학여울)	99년 5월	31,000㎡	7,948㎡
EXCO-Deagu(대구)	01년 4월	20,862㎡	11,616㎡
BEXCO(부산)	01년 9월	134,608㎡	33,183㎡
aT Center(서울 양재동)	02년 11월	18,810㎡	8,047㎡
제주컨벤션센터	03년 5월	5,030㎡	2,568㎡
KINTEX(고양)	05년 4월	330,580㎡	53,975㎡
김대중전시컨벤션센터(광주)	05년 9월	53,300㎡	10,200㎡
창원전시컨벤션센터	05년 9월	40,280㎡	9,259㎡
송도컨벤시아	08년	155,960㎡	8,390㎡



송도컨벤시아 조감도

집단장 착착, 손님맞을 준비 척척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우리시는 2009년 세계 이웃나라들을 손님으로 맞이해 잔치를 벌일 계획이다. 사람들이 새집으로 이사하면 으레 집들이를 하듯, 우리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도시 전체가 새로 단장되면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통해 한바탕 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그때쯤이면 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도시재생사업이 가시화된다.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개통되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에서 송도국제도시 구간 또한 2009년 개통될 예정이다. 같은 해 6월에는 인천대교

가 완공돼 세계적으로 그 위용을 과시하게 된다. 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월 1일 착

공한 65층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엑스포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세계 두 번째로 높은 151층의 쌍둥이 빌딩도 그때쯤 한뼘 한뼘 하늘높이 키가 커 있을 것이다. 또 세계로 하늘 길을 열어주는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확장사업도 2008년이면 마무리 돼 국제도시, 명품도시로 손색없는 인천의 면모를 한껏 뽐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니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다. 생산유발효과 2조4천800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2천여명, 부가가치유발 1조1천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리시는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방문해줄 손님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 중이다. 엑스포 개최시점에 맞춰 송도국제도시 약 35,702㎡에 u-City 홍보체험관을 비롯해 도시통합관제센터, 환승센터, 테마광장, 테마거리 등이 들어선다. 이 홍보체험관에서는 유비쿼터스 u=Home, u=Office, u=Shop, u=Cafe 등이 조성돼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술과 미래도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

근대 최초의 엑스포 ‘수정궁엑스포’

근대 최초 엑스포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수정궁엑스포이며 기관차 엔진, 수압식 인쇄기, 동력직기, 공장 기계 등이 전시됐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당시 수정궁엑스포는 프랑스, 독일 등의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는 촉진제 역할까지 했다.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수정궁’은 돌이나 벽돌 등 전통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철골과 유리로 만든 3층 건물이다. ‘수정궁’은 최초의 엑스포 전시장용 건축물로 세워졌으며 만국 박람회의 회장(會場)으로 활용되었다. 산업혁명의 시발점이던 당시 수정궁은 재료나 공법에 있어서 근대 건축의 선구역할을 했다.



시민감동 100%의 무한 프로젝트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동고동락을 자처하고 있는 인천시청의 종합민원실. 하루 1300여명의 시민을 맞이하는 이곳은 예전의 권위적이던 민원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글 · 정연희 자유기고가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민원실인지 시민의 사랑방인지 모를 만큼 화기애애함이 민원실 곳곳에서 느껴진다. 민원실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과 직원을 중심으로 변화를 가진 이곳은 지난해부터 시민의 충실한 도우미가 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도 좀더 편안한 분위기로 바꾸었고, 서비스 마인드 향상, 전문상담실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변화의 틀을 다졌다. 특히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원스톱 처리로 행정서비스 구현

민원실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민의 민원을 가장 빠르고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원예약제, 민원후견인제, 여권 가접수제, 조기출근 및 토요일당직제, SMS 발송, 여권택배제, 전문상담실 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민원후견인제는 115명의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종류에 따라 후견인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다. 민원처리에 따른 투명성과 민원인의 고충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시민이 신청한 민원을 해당 부서의 주무팀장이 주축을 이뤄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민원인들이 만족도가 높다.



법률, 세무 등의 전문상담실 강화

종합민원실 업무의 6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여권 업무에도 새 바람을 불어 넣었다. 여권가접수제와 택배제, 조기출근제가 새바람의 주역이다. 여권가접수제는 새롭게 바뀐 여권 발행업무를 위해 만든 것으로 일일 처리를 위해 선착순으로 새벽부터 줄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업무 시작 훨씬 전부터 시청 문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순서대로 미리 임시접수를 받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직원들은 새벽출근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토요일당직제를 운영해 민원상담이 365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중간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핸드폰문자서비스(SMS)도 호응이 좋은 편. 우체국 택배를 통한 여권택배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집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민들이 접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법률, 세무업무, 소비자보호 등의 민원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상담해 주는 전문상담실도 확대 강화됐다. 지난해부터는 전문상담창구를 4개로 확대해 상담 중이라도 민원처리가 가능한 것은 담당자와 상담자, 민원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담 창구도 은행의 프라이빗 룸처럼 만들어 민원인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인터넷 카페, 휴식코너 등 운영... 무료 음료도 제공

권위위주의 민원실 분위기를 화기애애한 시민의 사랑방으로 변신시킨 것 중의 하나는 시민을 위한 각종 휴식공간의 마련이다.

민원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편하게 종합민원실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

화려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신문이나 잡지, 시청소식을 접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인터넷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IT 공간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다. 게다가 무료 음료자동판매기를 운영, 시민들이 언제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이 곳을 찾은 한 시민은 "기다리는데 지루하지도 않고 아주 급한 업무는 컴퓨터로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며 "팩스나 복사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행정이 단순한 시청의 대시민 업무가 아닌 '서비스'임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정해년을 맞이한 종합민원실은 올해 각종 업무 시스템의 효율화는 물론 민원편람을 보다 실생활에 맞게 키워드를 정리하

고 편람만으로도 민원의 절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계양구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한 곳 더 추가 지정, 인천 시민들이 좀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여권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종합민원실의 변신은 무죄 아닌가요?”

한영호 종합민원실장



“시민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또한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시민들이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합민원실의 수장이 된 한영호 실장. 민원인의 입장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청을 찾기 전부터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찾아낼 생각이라는 그는 전문민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해결 방안까지도 모색하는 '한발 앞선 행정서비스'를 실천할 생각이다. 또한 서비스마인드 무장을 위해 전문 강사를 통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실천 뿐 아니라 고객만족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생각이다.



“컨테이너도 사람처럼 X-ray를 찍어요” 인천본부세관



「통발 수입을 가장해 중국산 마른 고추 밀수입」, 「성형 미용관련 전문 의약품, 새로운 밀수품목으로 등장」, 「동전형 금괴 33개 몸 속에 넣어 몰래 들여오다 적발」. 신문과 방송에 심심찮게 나오는 얘기들이다. 도대체 밀수가 뭐고 세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걸까? 조예인(신송초 6년), 강보미(박문초 5년), 이미연(박문초 4년), 권기두(동문초 3년), 손정민(청량초 3년) 어린이는 그동안 뉴스에서만 듣던 밀수나 세관의 기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중구 향동 7가에 위치한 인천본부 세관을 찾았다.

글 · 한정민 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국제 여객터미널을 통해 컨테이너 트럭이 들어오면 화물 검사 센터로 직행한다. 거대한 X선 검색기에 차체를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화물을 내렸다 싣는 번거로움 없이 차량을 통째로 검색하는 고정식 양방향 컨테이너 검색기는 시가 100억원에 달한다니 어린 친구들의 머리로는 가늠이 안 되는 가격이다.”

점점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밀수 수법

“밀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자의 질문에 다섯 친구들은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고개만 주저거리었다.

“미리 공부하고 왔구나? 무슨 뜻인지 말해볼 수 있겠니?”

희미한 웃음만 입가에 문채 대답이 없는 아이들… 지금 아무 말 못하는 것은 쑥스러워서만도, 혹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만도 아닐 것이다.

외국과의 거래에는 수출이나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 정해져 있고, 그 물품에 관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밀수는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들여오거나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몰래 들여오는 것이다. 나라경제를 망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회악’인 밀수는 순수한 아이들의 머리로 설명해내기엔 너무 난해한 단어인 것이다. 오늘 이렇듯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인천세관 한규미 반장은 어린 친구들만큼이나 해맑은 얼굴로 일행을 맞이했다.

한반장이 첫 번째로 안내한 곳은 2층 밀수품 전시장. 마약, 호랑이가죽, 위조지폐, 가짜 명품시계 등 밀수품 2000여 점이 진열돼 있다. 마약전의 모습도 보인다. 밀수품이 다양해지는 것만큼이나 밀수 수법도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진단다. 하지만 인천세관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다.

정상적인 통관 품목은 컨테이너 입구 쪽에, 밀수품은 컨테이너 안쪽에 적재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이나 거짓 서류를 꾸며 합법을 가장하고 들여오는 것은 구식 수법이다. 최근에는 휴대품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본인의 신체를 이용하기도 한다니…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밀수품을 적발하기란 만만한 일이 아닐 듯싶다.

“이렇게 큰 X-ray기계는 처음 봐요”

제2컨테이너 화물검사센터의 최용덕 반장으로부터 검색



기 도입효과와 기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감시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전에 본 곳이 차체를 한꺼번에 검색하는 곳이라면 이곳은 선원들의 몸수색과 짐 수색을 하는 곳이다. 실제로 짐 속에 권총을 숨기고 검색기를 통과시키는 시연을 해본다. 검색기 화면에 선명한 총기모양이 드러나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우와~ 저렇게 다 보이는구나.”

X선은 사람의 건강진단뿐만 아니라 밀수품을 적발해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제 감시정을 타고 한 번 나가볼까?”
한반장의 신나는 제안이다. 외항선이 들어오면 세관에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시정을 타고 수색을 한다. 물론 불시 순찰도 한다. 관세를 빼먹고 들어오는 모든 행위를 빈틈없이 잡아내야 하니까.

드넓은 관세국경을 지키는 순찰대가 되어

날렵하게 파도를 가르는 50톤 무게에 최대속도 37노트(시속 75km)의 감시정. 인천에서 해양경찰이 보유한 경비정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르다. 밀수행위를 들켜 도망가는 범법자들을 잡으려면 다른 배들보다 빨라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배는 물을 차며 나가지만 친구들이 탄 감시정은 물을 흡입해 쏘면서 나가기 때문에 속력을 더 낼 수 있다고. 마치 물 위를 날아가는 듯하다.

정민이와 기두는 감시정을 운전하는 김경수 반장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본다.

감시정 한 척의 가격이 22억원이 넘는다는 설명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인천지역 웬만한 아파트 10채 값이다. 그런데 바다 한 가운데 웬 전광판이 보인다. 거리와 물의 속도, 조수간만의 차, 바람의 방향 등을 보기 쉬운 기호로 알려주는 것이란다. 인천 앞바다는 바다깊이가 얇고 물살의 흐름 변화가 심해 항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과학의 힘이 새삼스레 대단하게 느껴진다.

망원경을 통해 주변을 둘러보는 기회도 주어졌다. 감시정을 타고 망원경으로 바다 구석구석을 살피는 친구들의

진지한 표정이 마치 드넓은 관세국경을 지키는 순찰대 같다. 한 친구가 중얼거린다. “빈틈없는 해상감시, 저희에게 맡기세요.”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심에 ‘우뚛’

우리나라 근대사는 개항과 함께 시작됐고, 이는 곧 세관의 역사이기도 하다. 근대화 과정의 풍상과 시련을 함께 했고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같이 성장했으니까.

인천세관은 1883년 1월 인천항이 개항한 뒤 그 해 6월 인천해관이라는 이름으로 관세징수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나이가 124살이나 되는 셈이다. 지금은 동북아시아를 맞아 인천항이 세계물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근대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본부세관을 더 많은 친구들에게 보여줄 순 없을까?

한규미 반장은 “과거에는 견학을 신청하고 1년여를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어 쉽게 견학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한다.

오늘 세관에서 하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체험하면서 ‘밀수품’에 대한 바른 인식을 자연스럽게 깨우친 까닭일까?

1시간 반 정도의 견학을 마치고 도움 주신 분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친구들의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인천세관 견학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incheon.customs.go.kr)나 전화(032-452-3199)로 신청하면 된다. 🍷



오늘 친구들이 인천항에 정박된 화물선을 둘러보기 위해 탔던 감시정은 ‘인천 304’ 호. 선체가 초경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으며 추진 장치는 프로펠러가 없는 워터제트(Waterjet) 추진방식 엔진을 장착, 고속으로 항해가 가능하다. 수심이 낮은 항·포구 등에서 밀수 우범선박들에 대한 검문과 감시업무를 할 수 있다. 감시정에는 해상에서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와 위성항법장치(GPS) 야간 항법장치 등 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어 주·야간 상관없이 해상밀수 단속업무를 해낼 수 있다.



무한 잠재력 인천 대기업이 몰려온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 이전의 물꼬가 트였다. 지난 1월 25일 (주)포스코건설(사장 한수양)이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국제업무단지 부지에서 안상수 시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기공식을 가졌다.

2010년 초 준공예정인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중앙공원 아래쪽 F1블럭 약 11,400㎡ 대지에 건축 연면적 약 14만2천㎡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37층 2개 동으로 세워지며, 사옥과 임대동으로 각각 활용된다.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서울사옥은 주로 토목·건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신사옥이 준공되면 현재 서울 역삼동사옥에서 근무하는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송도로 옮겨오게 돼 사실상 본사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사옥의 경우 2010년 이후 일부 영업기능만 맡고 1천 1백여명의 임·직원은 송도사옥 주변에 건립될 1천400여세대 규모의 사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은 송도국제도시 최초의 신개념 오피스빌딩으로서 국제업무단지의 핵심위치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옥에는 환경을 고려한 기법과 자재가 사용되며 오피스의 주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도시교류의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정비법 등 여러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국내기업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대

기업이 진출하기는 포스코건설이 처음이다. 포스코건설은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인 송도개발유한회사(NSC)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다.

포스코건설이 초기 투자자로서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사옥을 송도로 이전하는 것은 송도사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에 입성하는 최초의 대기업으로서 국내외 기업들의 송도 진출에 역할모델을 제공함과 동시에 송도 국제도시의 원활한 개발과 자본유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건설의 인천 이전은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옥에 대한 직접적인 취·등록세는 물론 직원들의 재산세와 주민세 등의 지방세가 인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0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의 자연스러운 인천 이전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난다”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여. 어느 도시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는 올해 '2007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한반도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뛸 각오이다. 그래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우리시의 비전이 가시화되어 누구나 동경하는 국제적 명품도시로 탈바꿈하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안게임 유치하고 세계 도시엑스포 준비



2014 아시안게임 개최지는 올 4월 17일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OCA 총회에서 결정된다. 인도의 텔리시와 경쟁하고 있는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방문한 OCA평가단이 보여준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이어나가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으로 국제경제 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국민소득을 3만불로 이끄는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사업이다. 인천대교건설, 국제업무단지 개발 등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순항을 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기울여 151층 인천타워 조기 착공, 피에라 밀라노사 주축의 영종물류 복합단지, 영종무의 관광단지 기반시설 착공, 청라지구 GM대우 R&D시설 준공 및 운영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복합물류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조성

영종지역에 약 360만㎡의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인천 신항 30선 석, 북항에 약 254만5천㎡ 규모의 항만시설 확충을 본격 추진해



2009년까지 완료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인천에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Sea & Air 복합물류 수송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의 복합 물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도시구조 재창조 모델 제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도시구조 재창조의 모델을 만든다. 그 선도에는 가정5거리 뉴타운 조성 사업이 있다. 가정5거리 뉴타운은 국제적 수준의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를 목표로 2013년까지 추진된다.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학교 생태 숲 조성, 담장 없애기 등 생활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가지 녹화사업은 이제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우리시는 인천대공원 등

12개 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5대 중요 하천은 자연하천으로 조성하는 등 굵직굵직한 일들을 처리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무궁해, 저공해자동차를 추가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으로 만들어 나간다.

고용창출로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경제자유구역, 구도심재생사업 등에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심각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청년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소외계층이 보호받는 따뜻한 인천

우리시가 추구하는 복지의 개념은 생활이 안정된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직업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주어 보람을 갖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사회의 주역으로 생



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재활전문병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등은 바로 이를 위한 것.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

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한 미래센터 건립, 여성을 위한 계양구 여성회관 개관, 서부여성회관 건립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시의 배려이다.

최고의 교육도시 인천 만들기

인천에 국내외 우수 대학들이 몰리고 있다. 국제학교도 설립될 것이고 국제학술연구단지도 조성된다. 특목고 3개를 신설하고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 인터내셔널 센터를 건립해 경쟁력 있는 특목고로 키워나갈 것이다.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어마을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교사도 확대된다.

국제 수준의 문화환경 조성



올해 우리시에는 박물관 6개, 도서관 3개가 새로 지어진다. 문화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문화, 예술,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도시 인천

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인천중국의날 축제, 인천해양축제 등을 경쟁력 있는 인천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국제 스포츠대회를 개최해 아시안게임 유치 확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마인드 갖춘 인천

시정에 기업마인드를 도입해 혁신적인 조직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핵심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M(Project Manager)제를 발전시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이다. 🐦

팡파르 계속 울려 아시안게임 유치 ‘짐’

지난해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는 박태환이라는 수영선수 때문에 행복해 했고, 김연아라는 어린 소녀가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워 했다. 스포츠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우리시는 지난 2002년 월드컵개최의 경험과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등 굵직굵직한 국제 경기를 무난히 치러낸 경험을 살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고 있다. 올해는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를 우리 시에서 치러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담금질을 계속할 계획이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점프 볼, 함성이 울린다

지난달 30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2007 인천시장컵 한·중 프로농구 올스타전’의 팡파르가 울렸다.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할 중국에 인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기 위해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2007년 첫 국제경기로 프로농구 올스타전을 마련한 것이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준비와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기원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 이충희, 강동희 같은 농구계의 대어를 배출한 바 있는 우리시로서는 농구가 갖는 의미 또한 남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농구대회는 (사)한국프로농구연맹(KBL)과 중국농구협회(CBA)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우리시가 후원하는 것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홈앤드 어웨이 형식으로 열렸다. 한·중올스타전의 사령탑은 LG의 신선우 감독이 맡았고, 삼성의 안준호 감독과 모비스 유재학 감독이 코치를 맡았다. 1월 28일에는 중국 무석시에서 경기가 열렸고 30일에는 우리시에서 홈경기를 치렀다. 우리나라 대표로는 외국인 용병 단테존스, 오예데지를 비롯해 양동근, 김주성, 조상현 등의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한편 중국에서는 왕즈즈, 이지첸리엔, 주팡위, 류웨이 등 중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두 나라의 명예를 걸고 승부를 겨뤘다.

우리시는 이번 대회를 축제형식으로 치렀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수 싸이의 공연을 비롯해 B-boy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경기 분위기를 돋웠고 KBS2 TV로 농구경기가 중계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었다.



한편 6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아시아 13개국 3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2007 FIBA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아시아농구연맹주최, 대한농구협회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경기의 우승팀에게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이 부여돼 아시아 각 나라가 뜨거운 진검 승부를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 향해 뛰고 달린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스포츠가 바로 달리기일 터이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제7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가 3월 25일 문학월드컵경기장과 송도를 잇는 구간에서 열린다. 2005년 이래 세 번째 국제대회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선수들이 참가한다. 지난해에는 국제도시로 부상하는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게 1만 3천여 명의 선수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7만여 명이 참여해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축제로 흥겨움을 더했다.

인간의 두 다리로 먼 거리를 달리는 종목이 마라톤이라면 바퀴달린 신발로 도로를 질주하는 인라인마라톤은 스릴과 패기가 넘치는 스포츠다. 오는 6월에는 인천국제공항 일원에서 제3회 인천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가 열려 5천여 명이 공항로를 달리는 장관이 펼쳐진다.

오는 5월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힘찬 음악이 흘러나올 예정이다. ‘2007년 코리아오픈 국제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가 5월 12, 13일 양일간 우리시에서 열릴 계획이다. 댄스스포츠라고 하면 흔히들 사교춤을 연상하지만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시범경기로 채택될 정도로 건전한 스포츠다. 댄스스포츠는 모던댄스와 라틴댄스로 나뉘는데 모던댄스에는 왈츠, 탱고, 퀵스텝, 비엔나왈츠, 폭스트롯 등이 있고 라틴댄스에는 삼바, 자이브, 차차차, 룸바, 파소도블 등이 있다.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

대 회 명	일 시	장 소	비 고
2007년 인천광역시장컵 한·중 프로농구 올스타전	1월 30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중국전 : 1월 28일 무석시
2007년 제7회 인천국제 마라톤대회	3월 25일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 송도해안지구 일원	
2007년 인천국제여자 챌린저테니스 대회	4월 29일~5월 6일	인천가좌시립테니스장	13개국 100여명 참가
2007년 코리아오픈 국제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5월 12일 ~ 5월 13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우승국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부여
2007년 FIBA 아시아농구 선수권대회	6월 3일 ~ 6월 10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제3회 인천국제인라인 마라톤대회	6월 중	인천국제공항 일원	
인천국제유소년 축구대회	8월 중(6일간)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	
제3회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10월 29일~11월 3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	60개국 900여명 참가



는 30여개국에서 1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 시립테니스장에서는 대한테니스협회 주관으로 ‘2007 인천국제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가 열린다. 일본, 태국, 필리핀 등 13개 나라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코트의 승부를 겨룬다.

이밖에도 7월에는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열리는 유소년 축구대회에 우리시가 참여하고, 8월에는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일본과 중국 청소년을 초청해 인천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 주최로 제3회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해 60개국 9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화려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이처럼 다양한 국제경기를 개최해 오는 4월 17일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OCA 총회에서 우리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낙점받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시로 발돋움



우리시가 유엔(UN) 산하기관인 국제연합대학(UNU)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역 전문가 센터(RCE, 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인증서를 받았다. 한스 반 긴켈 UN대학 총장은 지난 달 30일 우리시를 직접 방문해 RCE 인증서를 전달했다. RCE는 UN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구현에 필요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확산을 위해 조직된 전문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RCE를 통해 국제기구, 행정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언론, 대학 및 연구소, 교육기관 등을 포괄한 분야별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RCE 인증을 위해 시는 경인교대, 인천발전연구원,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해 3월 인천 RCE 인증준비발전위원회 구성원 섭외 및 업무협의를 거쳤으며 4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RCE 관련 국제회의의 참석해 RCE 인증에 대한 의향을 공식발표했다.

문의 | 시 국제교류센터 (440-6794)

2006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지난 2006년 9월 1부터 9월 8일 까지 총 화표본추출 2,800가구 만15세이상 6,85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

으로는 가족, 교육, 환경, 정보통신, 복지, 사회참여 6개 부문 40개 항목이다. 가족부문의 설문결과 부모님의 노후생계는 자식들 모두가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교육부문의 설문결과 희망하는 교육 분야로는 10대, 20대, 30대는 여학 관련 교육을 40대, 50대, 60대 이상은 문화교양 관련 교육을 선호하였다.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노인의 78.6%는 우리시나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기 원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시민 비율 10.7%에 불과해 우리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의 |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63)

송도동 문 열었어



지난 1월 9일 오후 2시 연수구 송도동이 새로 문을 열었다. 연수구 송도동 3-32 송도우체국 2층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안상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송도동 사무소를 개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정주여건이 조성돼 인천시 송도동이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440-2424)

이젠 자신있게 탈 수 있어요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난 12월 27일에 인천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체험 및 지하철 건설현장, 갯벌타워 견학 등 인천도시철도건설 홍보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동남아 및 러시아 등에서 이민을 와 아직까지 우리 생활이 낯선 결혼이민 초기의 여성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체험내용은 지하철 승차권 개찰 및 탑승 방법, 시승과 지하철 내에서의 비상시 대피요령, 안전교육 등 지하철 체험교육이 있었다.

문의 |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38)

해돋이공원으로 불러주세요

우리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부르기 어렵던 공원의 이름을 쉽고 친근한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주요 변경된 공원이름을 보면 송도신도시의 ‘송도1호공원’은 ‘해돋이공원’으로 바꾸었고, 중구 영종도의 ‘중앙공원’은 ‘영마루공원’으로, 연수구의 ‘연수5호공원’은 청학동의 지역이름을 딴 ‘청학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편 부평구의 ‘백마공원’은 공원이 위치한 철마산의 옛 이름이 원적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원이름도 ‘원적산공원’으로 변경했고 서구의 ‘가좌1동공원’은 ‘감중공원’으로 변경했다.

문의 | 시 녹지조경과 (440-3672)



외국인 생활가이드 영문 웹사이트 개설



우리시는 지난 12월 27일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생활가이드 영문 웹사이트 ‘Guide for life Incheon’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 거주 및 방문 외국인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외국인 생활가이드 영문 웹사이트(<http://guide.incheon.go.kr>)는 시 홈페이지 다국어 사이트(영·중·일) 초기화면 및 서브화면에 배너 링크돼 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842)

노사정협의회 개최



우리시는 12월 22일 노사정협의회 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공익이 함께 모여 인천지역의 다양한 노동관련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2007년도에 실시기로 합의된 사업으로는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에 노사정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기술 습득을 위하여 노사정파트너쉽 교육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노사정위원

회 시범사업으로 인천지역의 노사정협의회 발전모형 개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연구조사단 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시 기업지원과 (440-2943)

문자로 먼저 알려주는 대기오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에게 휴대폰을 통한 오존 및 황사 발령사항 안내 무료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휴대폰을 통한 오존정보 문자 서비스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예방코자 휴대폰을 통해 오존, 미세먼지 농도 및 오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http://air.incheon.go.kr/airinch/sms.html>에 접속한 후 가입하면 된다.

문의 | 시 보건환경연구원(440-5553)

숫자로 보는 인천소식



상수도요금 평균 8.2% 인상

인천지역 상수도요금이 오는 3월 납기 분부터 평균 8.2% 오른다. 가정용은 12.8%, 업무용은 11.3%, 옥탕용은 10.8% 인상되고,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높은 영업용은 2.9% 인하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수구입비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결손을 해소함으로써 상수도 시설개량·확장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문의 | 시 상수도사업본부 (720-2043)

8.2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우리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도심 속 웰빙녹지 확충을 위한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2007년도 웰빙 녹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봉화로, 호구포길 등 도로를 활용한 대규모 가로녹지를 조성하고 동구청 옥상 등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가로변 녹지와 차별화되는 견고 싶은 거리 및 테마 녹색 길을 조성하고, 인공구조물 및 시가지 녹화를 추진키로 했다.

문의 | 시 녹지조경과 (440-3664)

3,000,000

미래의 희망을 여는 신년음악회

지난 1월 19일 인천삼산 월드체육관에서 ‘대한민국의 희망 인천 2007 신년시민음악회’가 열렸다. 신년시민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1부는 SBS 리포터 김준아 씨의 사회로 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진행됐고 소프라노 이정애, 테너 김남두의 협연에 이어 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 ‘메구소리’가 이어졌다. 2부는 SBS SS501의 영스트리트 라디오 공개방송이 ‘2007 스타팅(Starting) 콘서트’라는 주제로 진행돼 SS501, 브라이언, 바비킴, 베틀, 슈퍼스타, 허니 패밀리, 애즈원, 마야, 배슬기, 박상민 등의 가수들이 출연했다.

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0)



투명사회 협약 체결



지난달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지방의회, 교육계,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천지역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은 인천지역 모든 사회주체들이 만성적인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방지체제 개선, 공직자 및 지방의원 윤리 강화,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윤리경영 및 회계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의 | 시 감사관실 (440-3130)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확정

우리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수

출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활동으로 관내 985개 중소기업에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명중소업체를 선정하여 CIS, 중남미 등 세계 3개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국제수준의 규모와 지명도를 갖춘 21개의 브랜드 전시(박람회)를 선정하여 참가토록 할 계획이다. 우리시에서는 수출 지원사업 안내 및 수출상품 홍보를 위해 인천인터넷무역프라자(kr.iitp.net)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능을 향상시켜 해외진출을 꾀하고자 하는 중소수출업체에 대해 최근 해외시장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기업지원과 (440-2864)

도로 물청소로 미세먼지 줄인다

우리시에서는 3월부터 도로상의 미세먼지(PM10)를 제거키 위해 주요간선도로에 물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고압살수차량(16톤차량)을 8개구에 1대씩 배치해 차량통행이 많은 도심과 주요간선도로에 하루 한차

레 이상 도로물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로물청소가 강화되면 2014년까지 미세먼지농도를 40 $\mu\text{g}/\text{m}^3$ 로 줄일 수 있어 맑고 쾌적한 하늘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440-3522)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확대

현재 인천지역에는 2개 기관이 무료진료사업을 시행중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16일까지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병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이 있는 병원급 이상으로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최근 2년간의 연도별 무료진료실적(법인은 재무제표상의 무료진료 실적 부분, 개인은 무료진료 실적 증빙서류)이다.

문의 | 보건정책과 (440-2756)

‘알찬마루’ 전국최우수 선정

남구 송의동에 위치한 청소년회관 ‘알찬마루’가 ‘2006 전국 최우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선정되었다. 청소년회관(관장 : 최제형)은 지난해 3월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방과 후 나홀로 방치되어 있는 남구와 중구지역의 맞벌이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감성·사회성 함양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했다.

문의 | 시 청소년회관 (440-6660)



의·정·소·식

인천국제공항 명칭 변경 반대결의안 채택
인천시의회(의장 박창규)는 지난달 24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152회 임시회에서 정중섭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인천국제공항 명칭 변경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인천국제공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세계일류공항으로 국제적 인지도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개명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이어,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인천국제공항을 고품격 물류공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07년도 의원연찬회 개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2007년도 의원연찬회가 열렸다. 이번 연찬회는 2007년도 정책구상과 의정방향 제시는 물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전문적인 역량을

제고, 화합을 통한 의회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의정특강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진훈 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의기법, 행정사무감사·조사 전략과 방법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강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분야별 회의를 통해 2007년도 의회운영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박창규 의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천광역시 5대의회를 공부하는 의회로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이에 지난 해에도 6월 29일 의원세미나,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연찬회 등 지방의회제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방의회 운영 및 회의진행, 의정활동 정보수집 기법 등 토론 및 연찬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올 첫 본회의 개최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올 해 첫 본회의인 제152차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안상수 인천시장과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의 시정 연설을 청취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2일까지 10일간 2일간의 2차례 본회의와 6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각 2건의 동의안·결정안을 심사·처리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각 실·국 별로 조치 실적을 점검했다.

자료제공 · 인천광역시의회 공보팀(440-6054)

뉴스 Zoom In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잘~했어요’



우리시가 고객에 대한 전화응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6년 10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전화친절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친절도 지수가 74.9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전문요원에 의한 전화응대 평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철도건설본부 전기전력과,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의 5급 이하 직원 1천명의 표본을 추출해 맞이단계, 응대단계, 마무리단계로 구분해 실시했다. 그 결과 신속성, 최초인사태도 등 맞이단계는 83.1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대단계는 71.5점, 마무리단계는 73.1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대단계에서 설명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객 응대 및 경청태도, 공손한 어투, 종료시 인사태도 등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시는 조사결과에 대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부서별 개선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아울러 전 직원 고객만족(CS)마인드 함양 및 친절 교육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2007년도에는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해 전화응대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시민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시 혁신분권담당관실 (440-3542)

송도국제업무단지 착공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는 지난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안상수 인천시장, 알렉산더 버쉬바우 주한미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트레이드타워(NEATT Northeast Trade Tower) 착공식을 개최했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300m 높이의 65층 건물로 1~33층은 다국적 기업, 금융 기관 등이 입주할 사무실과 유명 패션 브랜드의 부띠끄 등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고 34~64층은 200여개의 객실을 갖춘 장기 숙박호텔과 부대시설로 운영되며 65층은 서해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로 활용된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으며 총 5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컨벤션센터호텔과 중앙공원 착공식도 함께 진행됐다. 컨벤션센터호텔은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로 322개 객실과 레스토랑, 헬스클럽, 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룸 등이 들어서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운영은 세계적인 호텔 & 레저 그룹인 스타우드 호텔 앤 리조트(Starwood Hotel & Resorts Worldwide Inc.)에서 맡는다.

약 39만6천6백㎡ 규모의 중앙공원은 2009년까지 총 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원 내에는 해수를 끌어들여 만든 중앙 수로를 비롯해 박물관과 생태관, 인도교, 보행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포함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핵심시설물 착공은 지난해 말 체결된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의 3억5천만 달러 직접 투자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업무 및 상업시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에 통·번역센터 건립

우리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월 9일 (화)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통·번역 인력 배출과 국제비즈니스 정보수집·확산을 위한 터전으



로서 현재 조성중인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는 약 6만6천1백㎡의 규모에 국제행사 진행 및 공식문건 외국어 번역 지원과 통·번역원, 국제비즈니스 정보 수집을 위한 국제비즈니스정보센터,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한국어문화교육원 등을 건립하며 2019년까지 조성 완료될 예정이다. 센터 내 통·번역원은 국제컨벤션센터 운영에 필요한 8개 국어 동시통

역 및 번역 서비스 지원 등 실시간 전문인력 상시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제비즈니스정보센터는 최신 국제비즈니스 정보 수집·분류·확산을 통한 영어기반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 또한 한국어문화교육원은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예술 교육 등 외국인의 현지 적응능력과 외국어능력을 배양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버드-스미소니언 우주첨단기술 연구원 설립

인천에 우주첨단기술 협력연구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연세대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부지 내에 약 9천9백㎡ 규모의 '연세-하버드 스미소니언 우주첨단기술 협력연구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1월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원'의 IFEZ 진출은 그동안 IFEZ가 첨단산업의 메카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앵커대학, 연구시설을 먼저 유치하고 이들을 매개체로 하여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는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스타과학자 초청 심포지엄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1월 1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을 위한 스타과학자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서울대 의과대학,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 생명공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병원, 경

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외에도 중앙정부 관계자, 국내 의료·바이오 기업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의 구축 계획을 알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스타기관, 스타과학자와 함께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의 미래에 관해 논하는 장이 되었다. 심포지엄은 1개의 주제발표와 3개의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기택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IFEZ의 노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조장희 가천의대 박사가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어 김성호 버클리대 교수가 '신약개발산업의 미래'에 대해, 서정선 교수가 '동아시아 바이오메디컬허브 전략'에 대해 각각 특별강연을 했다.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453-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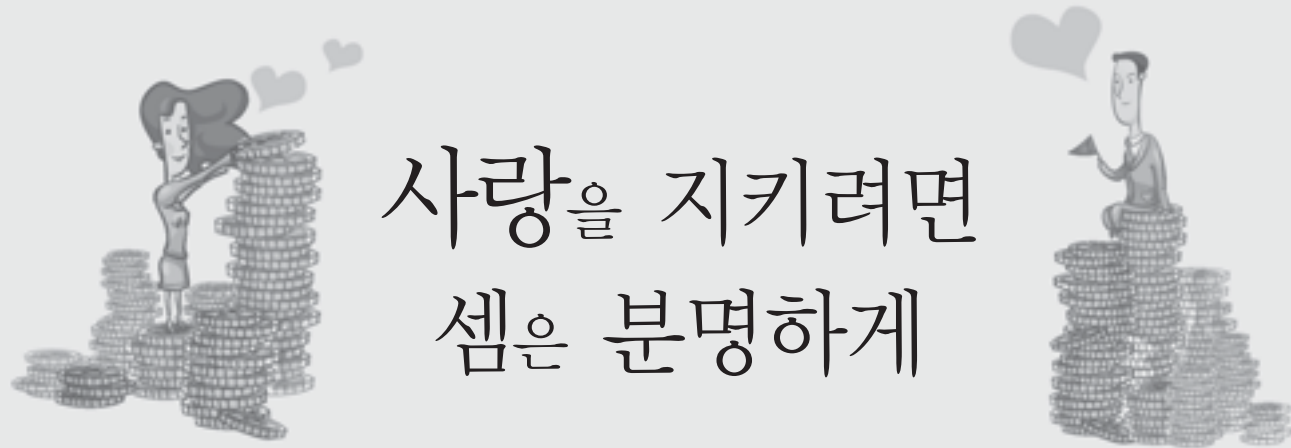
인천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가시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청장: 이환균)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서 글로벌 첨단의료허브인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을 위해 1월 4일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소장: 최상운) 및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최영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난 1월 10일에는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연구원(원장: 김영민) 및 서울대학교 병원(원장: 성상철)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과도 1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FEZ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과 동서통합의학센터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소 및 기업 유치활동, 고급인력 확보 등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잇단 협약은 지난 해 12월 말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은 것으로서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을 위한 스타과학자 및 스타기관을 유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는 바이오뱅크, 바이오메디컬네트워크, 바이오교육센터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웰빙센터, 동아시아 전문치료센터, 동서통합의학센터, 신약개발센터, 첨단뇌과학센터, 동아시아유전체센터 및 동아시아 재생의학센터 등 7개의 연구센터와 의료관광, 맞춤형신약, 첨단의료기기, 이식의학 등 4개의 클러스터로 구축될 예정이다.



사랑을 지키려면 셈은 분명하게

Q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인데, 전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할 생각입니다. 신랑과 함께 돈을 버니까, 경제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보장받으면서 혼인후 재산관계를 분명히 정하고 싶습니다. 미리 이런 내용들을 정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부부간에 재산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부부관계가 끝날 때, 즉 이혼을 하는 때 말고는 거의 없는 것이 '주머닛 돈이 싹짓돈'인 우리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란 역할 분담에 따라, 바깥과 관계되는 경제활동은 대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일처리를 하였고, 실제로 '돈'도 남편의 손을 거쳐 집안팎으로 들락거려 왔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 돈이 내 돈'이라고 여기며(적어도 혼인생활이 평탄한 동안에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 돈이 내 돈'이라고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 결혼하고도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많아졌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남자들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여성을 결혼 상대자로 반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결혼에 임하며 '내 경제적 권리'를 고려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아내도 독립된 수입이 있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경제적 문제를 온전히 남편의 명과 책임으로만 넘길 수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의식

의 발현이다.

여하튼, 위와 같이 혼인 후 재산관계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가 미리 정함으로써 후일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해 두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법 부부재산약정이다. '사랑하는 사이에 살벌하게 웬 계약?' 이런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는 아직 환대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지난 경험을 살펴보면 친한 사이에서도 셈이 두루뭉술할수록 분쟁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많고 분명히 정해 둘수록 빈정당한 마음에서 오는 갈등도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은 등기할 경우 제3자로부터 부부의 재산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남자가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새 아내에게 채무가 많아 남편이 재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전제품 등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다며 상담을 온 적이 있었다. 이 경우, 재혼 전 서로의 재산 귀속에 관하여 약정을 하고 등기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걱정은 덜 수 있었을 것이다. 부부 서로간이 아닌 제3자로부터 각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더 큰 분쟁을 방지하여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글 · 이상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861-5511)

간단한 응급조치가 생명을 살립니다

제가 응급환자를 치료하게 된 지가 벌써 16년이 다 돼갑니다. 16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의 열악한 시설로 인해 환자가 응급실바닥에 누워 있는 등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응급환자를 위한 정보망과 이송수단의 발달로 응급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신속한 처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몇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의 빠른 응급처치, 환자의 신속한 이송, 응급센터에서의 정확한 응급처치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즉시에 이루어져야만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후 어떠한 응급처치를 응급환자에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간단한 응급처치가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쓰러져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여러분은 두 가지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신속한 응급환자의 발생 신고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위사람들에게 사고발생을 빨리 알리거나, 119로 연락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입니다. 사고 발생 신고를 한 후 환자를 이송할 차량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응급처치를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경험이 없고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기억해두고 따라하면 사고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확인해서 구강 내 이물질이나 분비물이 있다면, 가급적 제거해 주십시오. 구강 내 이물질이나 분비물이 환자의 기도를 막아 숨을 막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자가 호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입에다 자신의 귀를 대고 입에서 공기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환자의 가슴을 봐서 가슴이 오르내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에서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고, 흉곽이 오르내린다면 이 환자는 호흡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때에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를 옆으로 누이는 자세를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공기의 흐름이 없고 흉곽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 환자는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때에는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환자의 심장이 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경동맥을 촉진하여 촉지가 안 되면 환자의 심장이 멈춘 상태이고, 촉지가 되면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심장이 멈췄다면 흉부마사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장압박방법에 관한 그림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쓰러져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 · 김상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응급의학과장(580-6000)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나에게 말했다.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라.” 자세를 낮추고 세상 속에서 몸소 부딪치며 일하고 있는 그들. ‘2007 동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여섯 명의 대학생들을 만나보았다.

글, 사진 · 윤상희 2007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 고려대 문창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인천시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7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100여명의 학생들을 선발했다. 이번 ‘2007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100명 선발에 총 2,431명이 신청해 24.3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 이 일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사회 경험과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며 나아가 근로 및 봉사를 통해 자립정신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2007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터득하게 된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학생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의 문 또한 자연스럽게 열게 된다.

친구란 이름으로

부평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예림일터에는 세 명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세 명의 여학생들은 장애인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작업 활동을 돕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을 갖는 것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삶의 원동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사회로 나아가는 재활훈련이자 자립능력을 계발시켜주는 좋은 기회이다.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일하는 예림일터의 장애인에게 학생들은 상하관계가 아닌 ‘친구란 이름’으로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예림일터에서 일을 하는 장애인들은 전자제품의 작은 부속품을 조립한다. 기계보다는 느리지만 그들의 손끝마다 ‘순수’와 ‘정’이 묻어났다. “그들은 어찌면 정상인보다 인간다울 지도 몰라요. 먼저 친해지려고 웃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들 얼굴에는 순수함이 가득 묻어나요.” 신선미(유한대학 패션디자인학과, 21) 씨는 쉬는 시간에도 장애인 친구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정히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 역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배운 것이다.

그들은 모두 친구였다. 대학생들은 장애인친구의 버벅 거리는 말투 속에서 그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다. 말과 손짓, 그림 등을 통해 자유로이 이야기 나누는 그들 사이에는 장애로 인한 벽은 없어 보였다. 장애인과 그들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섰기 때문이다.



내 삶의 방향키

고혜미(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씨는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사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며 고혜미 씨는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성복지관에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수업이 있는 동안 그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한다. 또래 아이들 보다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을 보며 고혜미 씨는 “엄마들이 한국어 하는 것이 서투니까 아이들 또한 그러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일을 고혜미 씨는 이번 겨울에 몸소 체험하고 있다.

최진선(명지전문대 유아교육학과, 22)씨 또한 이번 겨울 아이들과 동심의 세계에 빠져 있다. 여성복지관은 30개월 이상부터 6세 미만의 유치원 유아반을 운영하는데 최진선 씨는 보육과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한다. 그녀는 아이들을 잠시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의 규칙과 생활까지도 지도한다. 다정하게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최진선 씨는 밝은 미소로 이번 동계 아르바이트가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 나의 꿈에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007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대학생의 전공분야를 최대한 배려해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들의 미래를 생각한 인천시의 배려였다.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두 학생에게 이 짧은 시간이 ‘그녀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아르바이트가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심장이 들려준 소리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자신이 만들지 않는 이상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박한중(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1) 씨에게는 이번 겨울,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이번 동계 아르바이트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요양시설인 초도노인 요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박한중 씨는 노인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주변의 보호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커피자판기를 이용하려는 노인을 위해 동전교환 같은 간단한 서비스부터 노인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을 준다. 조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의 현저히 줄어든 지금, 이런 기회는 봉사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어느 날 심장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라.” ‘2007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대학생들에게 몸소 세상과 부딪치고 소통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 주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스스로 터득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아가 이번 ‘2007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나무를 훌륭히 가꿔 앞으로 인천의 울창한 숲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일하는 예림일터의 장애인에게
학생들은 상하관계가 아닌 친구란 이름으로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충천연색 거짓말



글 · 이왕준 인천사랑병원 원장

세상에는 정말 많은 거짓말들이 존재한다. 참말보다 많지야 않겠지만(그렇기를 바라지만), 그 종류도 너무 다양하다. 먼저 시간에 따라 나누면 과거에 대한 거짓말이 있고 현재에 대한 거짓말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거짓말이 있다. '내가 왕년에'로 시작하는 말은 과거에 대한, '젊어 보이십니다' 따위의 말은 현재에 대한, 그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위의

말들은 미래에 대한 거짓말인 셈이다.

악의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로도 나눌 수 있다. 선거 때면 흔히 보이는 흑색선전이 전자에 해당할 것이고, 라면도 못 먹으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는 쌀밥에 고기 먹는다고 말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하겠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란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다. 노루를 숨겨 준 농부의 거짓말은 노루 입장에서야 선의이겠지만 사냥꾼 입장에서는 반대이니 말이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거짓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짓말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주로 거짓말이라는 용어 대신 사기, 기만, 위증, 분식회계 등으로 불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구라'나 '뽕' 등의 속어로 바꾸어도 대중 뜻이 통한다.

누가 보아도 확실한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딱 부러지게 규정하기 어려운 거짓말도 있다. 사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는 매우 많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짓말이 더 해롭다. 상황에 따른 전형적인 거짓말도 많은데, 장사꾼(싸게 드리는 거다), 정치인(내가 책임자다), 교육자(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기자(~라는 여론이 높다), 공무원(적극 추진 중입니다), 의사(꼭 내일 다시 오셔야 합니다) 등 직업에 따라 관용적으로 흔히 쓰는 말들이 사실은 거짓말인 경우도 많다. 부부가 서로 '당신이 먼저 옆구리 쿡쿡 찔렀잖아'라고 말하거나 지각생이 '길이 막혀서'라고 말하거나 바람둥이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라고 말하는 등의 거짓말은 좀 애교스럽기도 하다.

정말로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는 거짓말도 있고, 거짓말인줄 뻔히 알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잠깐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있고 영원히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있다. 계속 속이려 했으나 금세

들통 나는 거짓말도 있고, 잠깐 속일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 영원한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이한 거짓말로 돈 벌 수 있는 거짓말(소설가, 배우 등)이 있고, 거짓말인줄 모르고 하는 거짓말(착각, 무지 등에 의한)도 있고, 거짓말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짓말(아무개 의원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 아니면 말고)도 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그리고 정말 다양한 거짓말들이 난무한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많은 거짓말들을 용케도 가려낸다는 점이고, 더 놀라운 것은 너무나 허술한 거짓말에 훌쩍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늘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그 차이는 욕심의 과다에서 비롯되리라. 그리고 보니, 세상의 모든 거짓말의 배후는 욕심일지도 모르겠다.

대선의 해가 되어서인지, 정치권이 시골시골하다.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 중 상당수는 너무나 속이 보이는 거짓말 아니면 과거에 그들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음에 대한 고백에 불과한 것 같아 씁쓸하다. 아직도 그 뻔한 거짓말에 국민들이 속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일까?

하지만 남의 탓 할 계제가 아니다. 새해를 맞아 과욕을 부려 거창한 계획을 세웠으나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아직 11개월이나 남았으니 이번엔 좀 더 소박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우리의 '에고(ego)' 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인간은 누구나, 특히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춘 사람일수록 강한 척을 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사랑과 격려와 존중을 받으면서 행복과 안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무관심과 무시로 인해 상처 받고 오그라든다. 특히 지도자일수록, 혼자서 뒤편 해낼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구하고 그들에게 애정과 존경을 보낼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한 듯하다.



행복한 시누이와 올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엄마(왼쪽)와 큰 고모는 친자매와 다름 없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 눈길 위에서 예순 넘긴 시누이와 손을 넘긴 올케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합니다.

김영진 | 서구 가좌3동

김치~찰칵



아이 눈부셔

스키장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햇빛이 너무 강렬한지라 애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네요. 그래도 작은 애는 얼굴 한번 보여 보려고 살짝 얼굴을 내미는 모습이 넘 귀엽네요.

전재은 | 서구 당하동

찾고 싶은 친구야~

어느날 앨범을 열어보니 이 사진이 있었다. 고개 숙인 친구가 누구인지 엄마께 물어보았더니 상민이란 친구라고 하셨다. 9년전에 찍은 사진이라는 친구 얼굴도 기억이 안난다. 이제 만나면 조금은 어색하고 쑥스럽겠지? 하지만 만나고 싶다, 친구야.

이준서 | 서구 석남1동



소금 주세요~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옛것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가끔 키를 쓰고 소금 얻으러 가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전정오 | 연수구 선학동

비료포대 썰매

초지대교 근처 논바닥에서 개구쟁이 막내는 비료포대 썰매 타고, 장난꾸러기 형아는 얼음바닥에 앞으로 뛰고 합체~

이지영 | 남구 주안4동



나의 퍼펙트 파트너

같은 날 면접보고, 같은 날 입사해서 함께 근무한 지 벌써 1년. 이쁘고 상냥하고 착실한 동료였기에 직장 생활이 즐겁고 편했습니다. 큰 꿈을 펼치기 위해 며칠 후면 이직을 해야 하는 나의 어린 동료, 떠올릴 때마다 웃음이 나올만한 추억거리 하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 무도회 가면을 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정은순 | 부평구 부평5동

함박눈

인천에 이렇게 큰 눈이 내릴줄이야~ 2007년 나에게 행운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 했다. 사춘 동생과 난 함박눈이 내리는 밤 거리를 거닐며 우리의 현재, 장래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함박 웃음 꽃을 피웠다.

김준희 | 서구 왕길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비린내 나고 소금기 묻어나는 사·진·들



소래

그의 사진은 단지 사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삶 속에 존재한다.

인천은 소금의 고장이었다. 1907년 주안염전을 시작으로 남동염전, 소래염전이 조성돼 전국 소금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인천의 짚물과 햇볕으로 만들었다. 1960년대 주안과 남동지역이 공업지대로 개발되면서 소금밭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햇빛에 검게 그을린 염부들은 공장 노동자로 떠나갔다. 마지막으로 버텨오던 소래염전이 마침내 1996년 7월 30일 문을 닫게 된다.

최병관은 시 쓰는 사진가이다. 소래포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그곳에 살면서 포구의 비린내와 폐염전의 소금기를 필름에 담아 내고 있다.

‘마지막 소금밭 소래염전’은 그가 20여년 동안 인천사람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소래염전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 집이다. 그의 사진은 단지 사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삶 속에 존재한다. 그동안 찍은 수많은 슬라이드 필름을 선별해 시간별로 나누고 사진의 예술성, 기록성, 역사성으로 편집해 총 5부로 엮었다.

오랫동안 그에게 따라 붙었던 ‘소래 사진가’라는 타이틀에 최근에 또다른 닉네임이 하나 더 붙었다. ‘DMZ 전문작가’. 그는 1997년부터



2년 동안 민간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DMZ에 들어가 ‘휴전선 155마일’에서 사진작업을 했다. 촬영 이후 2004년 일본 도쿄미술관, 2005년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사진전을 개최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40쪽 분량의 작품 사진이 실렸다. 그는 올해 UN본부에서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THE 이은결 매직콘서트 Magic is my life

세계적인 미술사 이은결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동화 같은 마술 이야기이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무대효과, 거대한 일루전 마술도구들,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특수효과, 뮤지컬을 보는 듯한 화려한 무대연출, 해외 미술사의 출연 등 지금까지의 이은결 마술 공연 중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일시 _ 2월 24일(토) 오후 3시, 7시
25일(일)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50,000원 / S석(2층) 40,000원

문의 _ 1566-6551 창라이프

발렌타인 콘서트 유리상자 속 달콤한 초콜릿이야기

사랑의 메신저 유리상자가 한결을 일찍 들려주는 Love Story. 얼마 전 9집 앨범발매로 다시 한번 최고의 가수임을 확인한바 있는 최고의 남성듀오 유리상자가 특별한 발렌타인 데이 선물을 준비했다. 유리상자 콘서트에는 사랑과 감동이 있으며 이 공연은 박승화, 이세준 두 멤버와 이미 가족 같은 밴드들과 관객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콘서트이다.

일시 _ 2월 10일(토) 오후 4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문의 _ 831-9189

가족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를 뮤지컬로 꾸민 무대이다. 왕비가 가지고 있는 말하는 거울은 어찌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자신을 꾸짖는 왕비의 내면일지도 모른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는 재미와 웃음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훈과 사랑과 그리고 용기를 줄 것이다.

일시 _ 2월 24일(토), 25일(일) 12시,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20,000원

문의 _ 1566-9921

퓨전 전자현악그룹 에카

퓨전 전자현악그룹 에카는 국내 최고의 크로스 오버 뮤지션으로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순수한 열정의 울림을 들려준다. 그녀들의 손끝으로 전해오는 감동과 Electric의 역동적이고 강렬한 비트 사운드는 관객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또한 톡톡 튀는 무대 매너와 여성미를 한껏 살린 화려한 의상 등은 클래식 음악의 전통을 파괴하며 관객들에게 새롭게 접근할 것이다.

일시 _ 2월 11일(일) 오후 2시

장소 _ 인천한중문화관 공연장

티켓 _ 무료

문의 _ 760-7860~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월 12	13 대건OB합창단 제4회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대건OB합창단 ☎ 225-8108	14	15	16	17	18
		21	22	23 평양통일예술단 초청공연 오후 7시 30분 연수구청대강당 무료 ☎ 810-7085	24 이은결 매직콘서트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만원, 4만원 창라이프 ☎ 1566-6551	25 이은결 매직콘서트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5만원, 4만원 창라이프 ☎ 1566-6551
활과 화살의 만남 특별전 화살 제작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으로 지정된 유영기 선생의 작품이 전시된다. 초청 전시물은 신기전기 1식, 활류, 노, 신전, 화살류, 총통류 등이다. 전시: 2월 1일~2월 28일 장소: 한중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760-7860)		28 제4회 하모니카키즈 정기연주회 오후7시30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씨리제홀 5천원 ☎ 812-6792	3월 1 3.1절 기념 모닝콘서트 오전 10시4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인천시립교향악단 ☎ 420-2781	2 가족뮤지컬<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25일) 12시, 오후2시, 4시 서구문화회관 2만원 ☎ 1566-9921	엘피스OB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5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씨리제홀 무료 ☎ 248-9909	
		7	8	9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74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1만원, S:7천원, A: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 420-2781	10 인천오페라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2만원, S:1만원 인천오페라합창단 ☎ 429-0255	11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인천 & 아츠’는 우리시가 주최하고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기획한 새로운 형식의 국제예술제이다. ‘음악교육’과 ‘공연’으로 구성된, 기존 아시아 아츠페스티벌의 답습적 프로그램을 과감히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국제페스티벌’이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인천 & 아츠는 클래식 음악을 비롯하여 뮤지컬, 재즈, 크로스 오버 등 다양한 장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민문화프로그램, 인천에 연고를 둔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필하모닉오케스트라(APO)’ 육성프로그램, 아시아의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인천 & 아츠 여름워크샵(APOA)’ 그리고 문화로 인천을 알리는 ‘인천시립합창단 일본투어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을 통해 인천을 새로운 문화 예술의 중심지, 명품도시로 부각시키고 있는 예술제이다. (문의 : 420-2020)

■ 주요사업 내용

- ① 인천시립합창단 일본투어 프로그램 (4월 4일 ~ 4월 10일)
- ②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육성프로그램 (7월 30일 ~ 8월 8일)
- ③ 인천 & 아츠 여름워크샵 (8월 5일 ~ 8월 13일)
- ④ 시민문화프로그램 (2월 ~ 12월 연중)
 - 2월 2일(금) 오후8시 - 임형주 & 바이에른 챔버오케스트라
 - 5월 3일(목) 오후8시 -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
 - 8월 17일(금) 오후8시 ~ 18일(토) 7시 - 인천재즈페스티벌
 - 10월 중 뮤지컬 (3회) (프로그램 미정)
 - 11월 24일(토) 오후8시 - 뉴에이지 듀오 '시크릿 가든' 공연
 - 12월 31일(월) 오후10시 - 2007 제야음악회

BOOK



김윤식 ‘옥탑방으로 이사하다’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雪山을 넘어 봄을 걸었다. 더 갈 수 있을까. 비를 맞았고 많은 곳을 보았고 나귀를 만났고 낙엽이 지는 것을 보았다. 이 시집에 실린 부족한 시들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시집 첫 장에 쓰인 짧은 자서(自序)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구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여행에 대한 희망을 걸어보며 그는 또다시 나그네 보정을 쓴다. 어느덧 이순(耳順)으로 접어 든 시인의 네 번째 시집이다. 최근 3년간 공들여 쓴 작품 70편을 여름에서 시작해 가을, 그리고 겨울을 건너 뚫 봄으로 마무리 했다. 겨울은 그에게 시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기로 동안계(冬安居)를 수행 중인 스님처럼 그도 펜을 놓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 시인은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났고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고래를 기다리며’ ‘복어·2’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저문 종소리를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를 펴냈다.



八音

버무려 독특한 색깔 만드는 국악실내악단 팔음

어느새 우리와 친숙해진 문화현상 중 하나로 '퓨전(Fusion)'이 있다. 일상 생활 속에 불어 온 퓨전 바람은 이제는 문화전반에 걸쳐서 독특한 자기 색깔을 지니게 되었다. 퓨전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른 문화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음악인 국악도 양악과 새롭게 만나서 퓨전 국악으로 일반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을 텃다.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퓨전국악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에 대중성과 현대성을 더해 일반인들이 전통음악을 친근하게 느끼고, 세계에 우리 음악을 자연스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악실내악단 '팔음'은 인천을 무대로 시민에게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국악의 그윽한 매력을 들려주는 악단이다. 부개4거리에 위치한 연습실을 찾았을 때, 단원들이 모두 휴가 중이라 대표인 김면지 씨만 만날 수 있었다. 지하 공간, 밖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한 방음시설, 광장처럼 탁 트인 넓은 방, 벽면 한 쪽을 가득 채운 다양한 악기들에서 전통예술만의 향기가 전해져 왔다. 사람들의 재주도 참 다양해서 그들만의 세상을 열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닥에 편히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김면지씨와 '팔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대중과 국악이 친숙해지려면 그들이 음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국악실내악단 창단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젊은 국악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팔음'은 2005년 1월 창단이 되었다.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 된 '팔음'의 멤버는 정단원 5명, 공연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는 객원 3명으로 여덟명의 멤버들이 여덟가지 악기로, 여덟가지 이상의 감동을 선사해 왔다. 단원들은 가야금, 대금, 타악, 아쟁, 해금, 소금, 작곡의 한 분야만을 맡아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낸다. 연습은 일주일에 2~3번씩 이 지하 공간에서 한다.

'팔음'의 뜻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여덟(八)이란 숫자는 음양오행의 법칙으로 살펴 볼 때 가장 완벽한 숫자란다. 그리고 팔음은 악기를 만드는 재료 8가지를 말하기도 하는 데, 8가지 재료란 쇠[金], 돌[石], 명주실[絲], 대나무[竹], 바가지[匏], 흙[土], 가죽[革], 나무[木]등을 말한다.



젊은 그들이 퓨전 음악인으로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신선함으로, 인천지역에 국악의 바람을 불어올 거라는 희망을 걸어 본다.

그동안 인천을 중심으로, 하늘축제, 부평풍물 축제, 한중문화 축제, 부평문화원의 금요상설무대 등에서 그 행사의 의미를 살리는 주제음악을 맡아서 주제선율을 연주해왔다.

김면지씨는 작곡을 담당한 사람이 따로 있어서 대중들의 귀에 익숙한 곡을 편곡하거나 새롭게 창작하고 있는 점을 '팔음'의 장점으로 꼽았다. 2년 동안 편곡 20여곡, 창작곡 10여곡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들의 손에 새로운 음악은 탄생되어 대중에게선 보일 것이다.

인기를 끈 영화 '왕의 남자'도 국악으로 새롭게 편곡을 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어! 많이 듣던 곡인데 국악으로 연주하니가 독특한 매력이 있네" 대중들이 보이는 이런 반응에서 국악의 대중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다양한 악기 모양이 우리 악기 같지 않다고 하니까 이름도 낯선 레인스틱, 우드 블럭, 카브라, 마라카스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해외 각국의 특수 악기도 연주에 필요하면 쓰이니, 악기의 만남도 퓨전이었다.

창단 후 2년 동안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자, 올해는 학교와 교육시설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공연장에서 우리 음악에 가장 신바람이 난 사람들은 초등학교생이라고 한다. 아직 때 묻지 않은 그들의 감성을 우리 음악으로 채우고 싶은 바람은 젊은 연주자들의 꿈이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교민들의 초청으로 일본, 중국으로 활동영역도 넓혀 왔다. 앞으로 정기연주회도 계획하고 있다는 젊은 그들이 의욕이 넘치고,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 보기에 좋았다.

젊은 그들이 퓨전 음악인으로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신선함으로, 인천지역에 국악의 바람을 불어올 거라는 희망을 걸어 본다. 🍷





김치언니, 단무지동생 정 나누기 20년

우 리시와 일본의 기타큐슈시가 자매처럼 지내온 지 근 20년.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의 세월이니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두 도시 중 자매도시 결연에 먼저 손을 내민 쪽은 기타큐슈였다. 당시 기타큐슈가 속한 후쿠오카현 주관으로 한일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그 일환으로 ‘청소년의 배’가 매년 인천항과 기타큐슈항을 오갔다. 1988년 후쿠오카현 지사가 이 배에 동승해 인천을 방문하게 됐고 우리시에 반해 자매결연의사를 밝혀와 인연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

1988년 자매도시를 맺은 이후 우리시와 기타큐슈시는 서로의 발전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뉘었다. 두 도시가 끈끈한 정을 나누며 많은 교류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닭은꿔’ 도시였기 때문이다. 기타큐슈는 네 개의 일본 열도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큐슈(九州)지방의 북쪽해안을 끼고 있다. 온화한 기후의 기타큐슈는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도시로 세계를 향해 활기 넘치게 뻗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시와 흡사하다. 기타큐슈시는 지리적으로도 대륙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요충지 역할을 했으며 혼슈와 큐슈를 이어주는 교통·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일본의 4대 공업도시 중 하나인 기타큐슈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츠비시화학과 지금의 신일본제철의

모태인 ‘야하타(八幡) 제철’ 등이 자리잡아 중화학도시로 처음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회색빛 중화학도시에서 관광의 도시로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고 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전통 문화행사, 풍부한 먹거리 등 관광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고쿠라성은 기타큐슈의 관광보물 1호다. 1962년 호소카와 다다오키가 지은 이 성은 당시 중국 당나라의 유행 양식으로 지어져 심플하면서도 웅장하다. 그밖에도 개폐식 다리인 ‘블루 윈 모지’, 국제우호기념도서관, 구모지 미쓰이 구락부 등 모지항의 정취는 여행객들에게 매력만점이다.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첨단 하이테크 산업이 발달한 이 도시에는 1990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라이선스 계약한 우주레이탄, 스페이스 캠프, 스페이스 돔, 빅뱅 플라자 등이 있어 미래의 우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현재 우리시와 기타큐슈시는 뱃길을 통해, 그리고 하늘길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교환 근무를 통해 두 도시간 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현재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하며 그동안 두 도시간 형제의 정을 잇는 전령사 역할을 해온 우에노 준이치 씨는 오는 3월로 만 2년이 돼 기타큐슈시로 돌아간다. 서글서글한 외모의 준이치 씨는 “단무지보다 김치 맛에 더 많이 적응했는데 기타큐슈로 돌아가게 돼 아쉽다”며 “귀국 후에 비공식 홍보대사로 인천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시 국제협력관실

Occupied와 Vacant

글 · 박영일 인천관광협회장

최근 들어 해외여행이 잦아지면서 항공기 에티켓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좁은 곳에서 장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 안에서는 이해와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승무원이 서비스 중일 때는 불필요한 기내 이동을 삼가해 서비스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나의 맛있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혐오식품일 수도 있으므로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도록 한다. 꼭 먹어야겠다면 다른 사람들이 식사할 때 먹는다. 옆 사람이 식사 중일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등 이동을 가급적 삼간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그릇들을 한곳에 포개 놓지 말고 원래의 상태로 두는 편이 좋다.

승무원을 호출할 때는 좌석 팔걸이에 있는 호출버튼을 이용하거나 승무원이 지나갈 때 가벼운 손짓으로 부르는 것이 매너이다. 간혹 승무원을 큰 소리로 부르거나 잡아끌거나 심지어 엉덩이를 툭 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

장거리 여행을 하다보면 발이 붓기 때문에 신발을 벗기 쉬운데 맨발보다는 슬리퍼를 준비해서 신는 것이 좋다. 기내 좌석은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착륙시에는 반드시 원위치 시키며 식사 시에도 뒷사람을 위해 등받이를 세운다. 기내 화장실은 절대 금연구역이다.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내 화장실은 안에서 문을 잠그면 바깥 표시등에 ‘사용중(Occupied)’이란 표시가 들어오며 잠그지 않거나 비어있을 경우에는 ‘비어있음(Vacant)’으로 표시된다. 만약에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문을 안에서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 다른 승객이 비어있는 줄 알고 문을 열게 돼 낭패를 볼 수 있다. 🍴



스페셜 메뉴도 추가요~

기내식은 사람에 따라 고역일 수도 있고 여행의 즐거움일 수도 있다. 기내식은 보통 비행시간이 6시간 이내일 경우 1회 제공되며 6시간 이상 일 경우 두차례 제공된다. 외국항공사의 메뉴는 소고기, 닭고기, 생선 등이며 국내 항공사는 비빔밥 등 한식이 제공된다. 건강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특수한 식사를 원할 경우나 어린이 등은 탑승 72 시간 전에 미리 예약하면 별도의 추가 요금없이 당뇨식, 채식, 어린이식 등 특별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후덕하게 보이던 소안(素眼) 최성연(崔聖淵) 선생은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다. 특히 나에게는 어린시절(中3)부터 인연의 끈을 주신 분으로 지금까지도 눈에 선하다. 종군기자의 예리한 눈은 가슴속에 숨기고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며 꼭 마음속에 갈 한자루를 품고 관조하신 것 같다.

1994년 초여름(6월 16일) 팔순잔치가 열렸던 간석동의 ‘갤럭시 호텔’이 생각난다. 축가를 부르던 중 그만 가사를 잊은채 전전긍긍했던 생각이 지금도 창피만발, 음치다운 음치의 표본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다. 문단의 후배로는 손설향 시인과 이석인 시인, 그리고 필자 그렇게 3명만이 참석한 그때를 생각하면 문인으로서 면목이 없어 죄송하기까지 했었다.

칠순(84년)이후 시름시름 아프시던 선생은 팔순쯤에는 훌훌털고 사진기를 들고 다닐 정도로 쾌차하여 참으로 기쁘기 한량이 없었다. 다시 6년전 ‘기호일보’의 서강훈 사장의 배려로

나온 ‘갈매기는 사라졌는데’의 출판기념회는 김길봉 인천문화원장의 발의로 중구 관동에 있는 중국집 ‘동보성’에서 이루어졌다. 젊은 문사(?)들이(이석인, 김학균) 선생의 여적과 대표시를 낭송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더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5·16 군사혁명이후 폐간, 복간을 거듭한 서울신문의 지사장을 하던 1962~3년 (염업사무실, 지금의 중구청 앞) 나는 그 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으로 (연극인 전무송씨와 함께) 인연의 타래를 풀기 시작하였으니, 실로 4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한미수호통상조약이 ‘화도진’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고증하고, ‘청구사진문화사’를 경영하며 ‘심판자’를 제작해 극영화에 공헌했다. 또한 인천 시민 행진곡의 가사를 만들고, 인천 시립교향악단 출범에 기여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무엇보다 종군기자로서 외국인에게 인천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깊은 사명

감을 발취 ‘지역알기’에 매진해 오늘의 지역사 연구의 필독서인 ‘개항과 양관역정’을 탄생시켰다. 하나 묻혀버릴 것 같은 문학의 업적은 전자 못지 않은 찬사를 받으며 시조계의 거성으로 우뚝섰다.

현대 한국문학의 분수령은 해방연대가 아니고 한국전쟁 종전 시기인 195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조시단의 새로운 기운이 일기 시작한 것도 1955년 <동아일보 창간 35주년 기념 현상문예공모>에 최성연의 「핏자국」(훗날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지칭)이 당선되면서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소재의 새로움과 상징적 기법에 의한 표현, 현실상황을 일관되게 주제로 삼은 현대 시조의 개척자로서 평가 받았다. 최전방 관측소에 전쟁종군기자로 참전했던 경험을 살려 치절한 전쟁상황을 그린 「핏자국」은 시조시단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현대시조의 개척자라는 평가를 얻어 인천문인으로서의 긍지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같은 해 첫 시조집 「은어」를 상재하면서 그는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널리 알리게 된다. 일석(一石)이희승(李熙昇)은 이 책의 서문에서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담기에 성공할 것이다.’라며 격려하였다. 특히 이 시집은 좌수서(左手書)로 유명한 검여(劍如) 유희강이 쓴 제호와 천경자 화백의 표지화가 특징이다.

그는 1914년 중구 율목동에서 출생, 아홉살에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교)에 입학, 중학교를 거쳐 경성제2고보(현 경북고교)를 마치고 평북강계 영림서에서 십여년간 근무했다. 그후 다시 인천으로 내려와 송학동에 정착하며 김숙양과 결혼, 칠남매를 둔다. 서구 가정동에서 아내, 아들 내외, 손자 등과 유복한 말년을 보내다가 1988년 세 번째 시집 「갈매기도 사라졌는데」를 남기고 2000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게으름 없이 인천사랑 실천에 매진한 그의 업적을 기리는 홍상하나 없다함이 참으로 안타깝다. 근간 만국공원(자유공원)

복원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먼저 오르면 어떨까. 88년 작으로 종군기자 시절을 회상하며 쓴 시조, 여적을 달아 역사공부에 일조하는 글이다. 🍷

<仁川閣>

「오정포」산 허리 짬에
이리저리 참호(塹壕)파고

아람두리 나무통들
가로 세로 덩굴렀는데,

인천각(仁川閣)
그 호화롭던 양옥(洋屋)마저
심한 함포(艦砲)맞고
폭삭 주저 앉았다.

집 뺨시 뛰어나고
쓸모 또한 큰 탓일까

모른채 석달 내내
고스란히 남겼다가



갑자기 십자 포격으로
수월하게 쳐부수다.

인민군 군관들이
은신처로 잘못 알고

꾸역꾸역 모였다가
삼태기 쓴꼴
됐다던가

어렵게
전쟁 겪고 세우더니
끝내 전쟁 탓에
썰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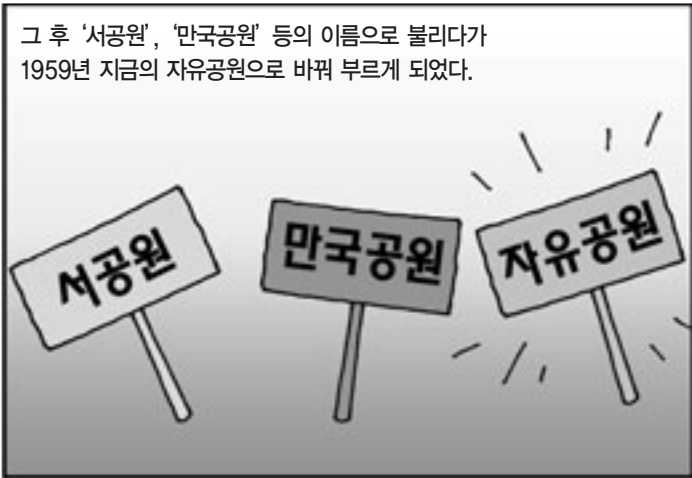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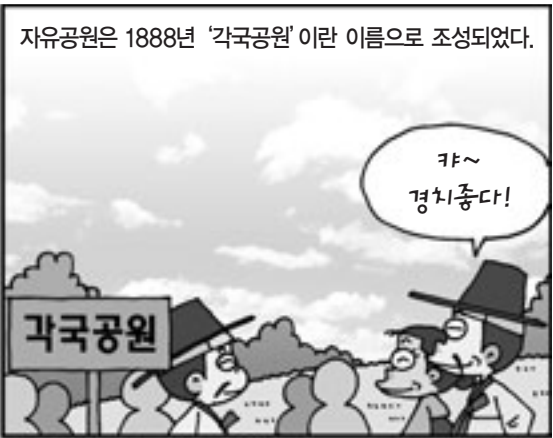


餘滴：오정포산(午正砲山)의 본 이름은 응봉산(鷹峰山)인데, 일제 때 이곳에 있던 인천축후소에서 오정(낮 12시정각)에 소형 산포(공포)를 발사해 「오정포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인천각은 1904년 러일전쟁이 그치자 영국(스코틀랜드)인 제임스·존스톤씨의 하계별장으로 건축되었는데 놀랍게 거금 30만달러를 투자한 그 당시 인천 최대 최고의 호화판 4층 건물이었다. 그런데 인천각은 인천상륙작전 바로 직전에 거대한 미국전함의 포격을 맞고 폭파되었다. 존스톤씨는 인천각이 몹시 흠족했었던지 일찍이 같은 설계의 쌍둥이 저택을 상해에도 지었다고 하는데 그는 상해조선소의 사장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

자유공원

카툰니스트·이영호 (kaljebi@paran.com)



지난 호에 게재된 '팔미도등대' 편에서 인천상륙작전에서 팔미도등대를 탈환한 것은 한국인 3명과 미국인 3명으로 구성된 켈로부대(KLO)임을 전석환·문진환 독자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울러 팔미도등대가 인천시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2002년 2월 4일로 바로 잡습니다.

어둠을 향해 질주하는 말 없는 운전자

인천지하철 여성 기관사

김현정

글 · 김 류 시인 | 사진 · 김보섭 자유사진가



흔히 타고 내리는 지하철이지만, 그 지하철을 이쪽 역 끝에서 저쪽 끝 종점 역까지 달리게 하는 기관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더구나 여자 기관사에 대해서라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편집장의 생각이 거기에 미친 것이다. 인천 유일의 여성 지하철 기관사 김현정(金賢正) 씨, 그녀를 만나 보면 어떨까?

언제나 밤처럼 캄캄한 지하 터널 속을 내달리는 직업. 레일을 따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려갔다 달려오는 지극히 단조로운 직업.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편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직업, 그런 삶. 아, 세상에는 이렇게 남과 다른 일을 하며 독특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날은 김현정 씨 옆에 앉아서 세 시간이 넘도록, 인천지하철 그 '어둠을 향해 달리는 직업'을 따라다녀 본 것이다.

사실, 김현정 씨가 몸통이 경인 전철보다 작기는 해도 미끈하게 생긴 굴현행 열차를 끌고 와서는 아주 부드럽게, 동행한 사진작가와 이쪽이 서 있는 플랫폼 정지선에 약간의 오차(誤差)도 없이 톱, 정지할 때까지도 기관사나 기관사라는 직업에 대해 크게 다른 무슨 '감상(感想)'이 있지는 않았다.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기관실 보조 의자에 앉아서 달려들 듯 빠르게, 무섭게 다가오는 길게 뻗은 킁킁한 굴속 레일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아, '여자 기관사' 혼자서 이 열차를 운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인천 유일의 여자 기관사라는 자·부·심



“지루하거나 고독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컴컴한 지하를 달리면서 지루하지 않고, 단조롭지 않고, 조금도 고독하지 않다니...? 그러나 그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었다. 우리 생각에 불박이 레일을 따라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그저 열차를 운행하면 되는 것 같지만 기관사의 업무는 그게 아니었다. 모든 감각기관을 총동원해 집중해야 하는 매우 바쁘면서 또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처음, 인터뷰를 위해 이곳이 기다리고 있던 인천시청역에 열차가 들어와 서는 순간에도 기관사 김현정 씨는 몇 가지 일을 순식간에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했고, 이쪽을 태우고 다음 정거장을 향하면서도 여전히 눈과 귀와 손을, 능숙하게 달리는 열차에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구나. 기관사는 절대로 지루할 새가 없고 따분할 겨를이 없

는 사람이다.

물론 그것은 2분만 달리면 이내 연속으로 다가서는 술한 ‘다음 정거장’ 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 매우 삭막하고 어두운 굴속을 출발했다 하면 금세 암흑 저 뒤편에 흰 히 불을 밝힌 채 또 다른, 무슨 오아시스처럼 나타나는 다음 플랫폼! 30초 이내에 승하차를 전부 끝내고, 다음 역을 향해 가는 그 짧은 시간 간격 속에서 기관사의 눈과 귀는, 온통 승객과 열차에만 집중되는 것이다.

열차가 달리거나 또는 출입문을 열고 닫거나 할 때 들려오는 기계 소리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적 판단, 그리고 정차와 발차 때 CCTV의 화면과 또 역마다 기관사가 살펴보도록 설치된 후사경(後射鏡)에 비치는 모든 승객들의 승하차 상황, 출입문 상태 등 한꺼번에 3가지 일을 켜켜,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한눈에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분마다 반복되는 바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루하고 단조롭고 고독할 수가 있을까.

“이 소리 들려요?”

들릴 리가 있다. 닫힌 이쪽의 귀가 40에서 70킬로로 급가속하는 순간의 기계가 내는 소리, 그 어렴풋함 감(感)을 어떻게 열린 그녀의 귀처럼 쉽게 감지해 들을 수 있겠나. 그저 모든 게 다 열차의 쉿덩이들이 달리며 내는 소리려니 할 뿐. 그 작은 소리들이 이상 없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귀에 들리려면 한 2년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면서.

귀뿐만 아니라 기관사로서 도시의 경지에 오르면 전방의 물체가 다가오는 정도만 보고도 지금 달리고 있는 내 차의 속도를 안다거나, 또 어떤 ‘귀신’은 열차를 역에 정지시킬 때에도 각 역에 그어진 정지 목표 선에 10센티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정지시킨다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스터 컨트롤러에 손을 얹은 채 곳곳이 전방만을 주시하고 있는 김현정 씨가 참 든든하다. 둥그스름한 옆얼굴이 수수하고 씩씩하면서도 한편, 미덥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가 현재 종점인 굴현역이에요. 3월부터 계양역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계양까지 시험 운행중 이거든요.”

어느새 계양역. 차내에는 여유롭게 모차르트가 흘러나오고, 이제 환한 지상, 종점으로 나왔으니 사진작가는 플랫폼에서 그녀의 사진을 마음 놓고 찍으려 했는데 사정이 그게 아니었다. 열차가 서자마자 그녀는 이 버튼 저 버튼을 누르



고, 마스터 컨트롤러에 키도 꽂고, 또 관제실에 보고 통화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소지했던 가방을 들고는 다시 달려왔던 열차의 맨 뒤, 아니 이제는 맨 앞 방향인 된, 반대편 끝으로 뛰자는 것이었다. 더 머무를 시간이 없이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저녁은 아니었지만, 황동규(黃東奎)의 시 「불 끈 기차」를 잠시나마 연상했던 것은 잘못이었다.

불 끈 기차가 지나가지.

저건 신촌 집에서 쫓겨나 번두리로 번두리로

가벼운 마음으로

눈감고 달리는 기차야.

〈중략〉

허지만 아빠,

기차는 수색에서 잘 거야

둥글게 댄돌다 꼬리에 코를 박고.

그리고 보니 이 열차는 앞뒤로 기관실이 달려 있는 것이다. 수색에서 자는 황동규의 기차처럼 둥글게 댄돌다 꼬리에 코를 박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세 사람은 길이 18.5미터 짜리 열차 여덟 칸을 험레벌떡 전속력으로 뛰어 다시 끝으로 왔다. 이번에는 반대편 종점 동막역을 향해 가는 것이다.

사진작가가 다소의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지하철은 다시 그녀의 손에 의해 시침 톱 떼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또 50분가량 침침한 어둠 속을 달려야 한다. 이내 지루하고 지겨워져서 주책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사진작가도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사실 계양역에서 본 김현정 씨는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았다. 어두운 기관실 안에 혼자

탑승해 있으니 화장이 꼭 필요할까도 싶지만, 여자이니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다. 복장도 남자 기관사와 같다. 여자 기관사가 단 한 명이니가 달리 여사용 복장 디자인이 없는 것이다.

“맞아요. 그냥 크림만 발라요. 아무래도 미세 먼지가 있어서 화장을 안 해요. 역에 도착하면 세수만 자주 할 뿐이지요.”

대전산(大田産)인 김현정 씨가 인천에 오게 된 것은 1999년 2년제 부곡철도대학을 졸업하던 해, 그때 막 개통한 인천지하철 입사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었다. 기관사라는 직업이 고등학교 때부터 몹시 매력적으로 느껴진 이유는 대전이 워낙 철도 교통의 요지여서 기관사를 흔히 보았기 때문일까. 대학 4년 선배이면서 철도공사 소속, 경인전철 기관사인 남편 역시 그런 선망 때문에 만난 것일 게다. 단지 흠이라면 두 사람의 운행 스케줄이 워낙 불규칙하고 다른 까닭에 한 집안 안에서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날이 더러 있는 것이다. 결혼 4년이지만 아이가 없는 것도 그런 연유인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런 생활이, 속 좋이며 만나던 연애시절을 떠올리게 해 더 좋다는 것.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세요. 열차 발차합니다.”

부평역에서 그녀가 창문을 내다보고는 이런 경고 방송을 한다. 자기 일행 기다린다고 발차해야 하는 열차 문을 잡고 있는 사람, 떠나는 열차에 대고 세워주지 않았다고 민원 화풀이하는 사람, 출입문에 이물질을 넣거나 장난치는 사람, 늦은 시간의 취객들, 이런 사람들이 그녀나 동료 기관사들을 긴장시키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바깥세상에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는 캄캄한 지하를 다니고는 있지만 제 직업에 100 퍼센트 만족해요. 인천 유일의 여자 기관사라는 자부심, 그리고 남편 사랑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뭘 더 바라겠어요?” 🐦

100원짜리 동전과 파출소



어느날 아침 늦장을 부리는 딸아이에게 학교에 가지말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눈물을 보이며 학교에 가고 아침 내내 마음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딸아이와 화해도 할 겸 하교시간에 맞추어 학교에 갔답니다.

가방을 들고 모녀가 다정히 손을 잡고 공원을 지나쳐 오는데 100원짜리 동전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구요. “엄마 100원으로 뭐해요?” “글쎄 너는 뭐하고 싶니?” 아무 대답 없는 딸아이에게 저는 저금통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은행에 가서 저금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오자마자 딸아이는 자랑하기에 바쁘더라구요. 남편은 저를 보며 파출소에 갔다 쥐야지 아이 통장을 만들어줬냐며 싫은 소릴 하더니 곧 아이들을 앉혀 놓고 길에서 주운 물건이나 내 것이 아닌 것은 파출소에 신고해야지 가져오는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새 방학이라서 착한일과 심부름을 하면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심부름 500원, 설거지 500원, 신발정리 500원을 정해놓았죠. 한가지 하고 500원씩, 어떨 땐 3가지 다 해놓고 1,500원을 달라고 하더니 일주일씩 모은 용돈으로 군것질은 하나도 안하고 열심히 저금통장에 저금하고 있습니다. 저금 많이 해서 엄마 아빠 비행기도 태워주고 목걸이 반지도 사주고 할게 너무 많단나요. 마음이 예쁜 딸. 아직은 돈 개념에 서툴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저금통장에 저금 많이 해서 나중에 크면 부자가 될거라네요.

이연재_연수구 선학동

한푼 두푼

내가 두 살 무렵 때부터 엄마께서는 차세대 통장을 만들어서 한푼 두푼 모이면 만원으로 바꾸어 저금을 하셨다. 명절엔 십만원도 넘는 돈을 저축하다보니 1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족이 이사를 하려니 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동생과 함께 합쳐서 320만원을 빌려드렸다. 엄마께서는 1년이 되면 이자를 주신다고 하시며, 나에게 쓸 돈이 있을 때는 160만원에서 쓴 만큼 돈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6학년 여름방학 때 걸스카우트에서 일본여행을 하게 되어서 80만원을 쓰고 80만원이 남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자가 반으로 되어서 4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은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있다. 엄마가 주시는 이자를 받으면 더 늘어나겠지? 나도 이제부터는 왕짚순이가 되어볼까? 그럼 더 의미 있는 곳에 나의 힘이 닿겠지? 나도 우리 집의 주주!

오정은_부평구 삼산동

저축하는 힘을 느껴보세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넷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대단하다, 애국자다하면서 나라에서 무슨 큰 혜택을 만나보다 부러워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이들을 거저 키우는 세상이 아니어서 적은 액수로 살기란 힘에 겨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정해진 용돈이란 없을 뿐 더러 저축을 하기로 한들의 별 따기입니다. 저 또한 아이들 이름으로 저금통장을 만들고 일 년에 한 번 세배하고 받은 돈을 반 강제로 받아 넣어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은행거래가 겨우 사오 년 밖에 지나지 않았 습니다. 그 사이 큰딸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작은딸이 뒤이어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아이들 통장까지 헐어 써야만 하였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통장을 보자고 하면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면서 미안하고 빚진 것 같은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9월부터 학교 급식에 도우미 아줌마로 출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달 시급이 입금 되자마자 그동안의 무거운 마음을 벗어 버리기도 하듯 아이들의 통장에 각각 만원씩 저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닷달. 아이들의 통장을 보며 흐뭇해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이들 또한 제 이야기를 듣고 쓰고 없어진 돈보다 엄마가 다달이 넣어준 통장의 잔액을 보며 좋아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단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벌어진 돈에 비해 병원비가 많이 들어 남편에게 미안하고, 앞으로 아이들의 통장에 엄마의 이름으로 만원씩 채워가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나를 서글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이 느꼈던 행복이 더욱 가치가 있고 큰 것이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기회가 온다면 잡을 용기를 내어 봅니다.

김영자_남동구 도림동



돼지야, 날아라 훨훨

한 달 전쯤. 엄마가 아시는 분의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황금빛 저금통이 제법 비싼 티를 내며 두 마리가 창가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주인 아주



머니가 하나를 주시면서 ‘사람 뱃속은 너무 꽉 채워 넣으면 탈이 나고 힘들지만 이 뱃속은 가득 차지 않으면 허전하니 열심히 채워서 네가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

집으로 오자마자 바로 신발장 앞에 올려놓았다. 오며 가며 주머니 속 동전이 굴러다니면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학교 갈 때마다 한번씩 흔들어 보면 ‘짹짹’ 하며 나는 소리의 강도가 묵직할수록 그 안에 갇든 내 다짐도 부풀어 오른다. 지난 한해도 다짐했던만 마음대로 실천이 안 된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기, 좋은 책 많이 읽기, 음악이나 TV 시청 즐기기 등등 너무나도 많았다. 이제는 든든한 내 편인 돼지도 생겼으니 돼지 뱃속에 확실한 나의 다짐을 꼭꼭 접어 쌓아보련다. 돼지 뱃속에 있는 종이비행기(돈)가 저 멀리 하늘까지 훨훨 날아 나의 다짐이 2007년에는 더욱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정윤_서구 마전동

저금의 힘



21년 전 우리 부부는 포천 두메산골 가난한 대가족 속에서 생활하다가 인천으로 분가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남편

한달 월급이 28만원. 나는 제일 먼저 적금통장을 만들었다. 15만7천원씩 저축하고 큰 아이가 9개월 정도 되었는데 월 3만7천6백원씩 교육보험도 들었다.

매월 적금으로 20여만원이 나가고 8만원 정도로 한달을 살았다. 매일 밥상에는 우거지 된장찌개가 고작이었다. 야채 가게에 가서 우거지를 주워다가 삶아서 먹었다. 그렇게 8년을 꼬박꼬박 저금통장을 불려서 21평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12년을 21평 아파트에 살면서 남편과 나의 검소한 생활은 계속되었다. 또다시 더 큰 평수를 위해 청약 저축통장을 만들고 꼬박 저축한 결과 2006년 가을에 현재 살고 있는

31평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저금통장의 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도 나는 계속 미래를 위해 저금을 계속하고 있고 20년 전에 들었던 교육보험이 지금 우리 큰딸 대학 다니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정혜경_남구 주안8동

프러포즈를 받으려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몇 번의 월급을 타게 되었을 때 학생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만 했던 나와, 힘들게 학비 마련해 주시는 부모님께 용돈 달라기가 미안하다는 남편은 언제나 가난한 연인이었죠.

그렇게 만날 즈음 몇 달 후면 남편의 생일이 다가옴을 알게 되었어요. 근사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저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었는데 하루에 동전 오백 원씩을 빠지지 않고 모아서 한달에 한번씩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작은 동전이었지만 몇 개월이 흘러 그 돈이 목돈이 되었고 저는 근사한 저녁과 선물을 했어요.

그때 남편은 무척 감동했었고, 나중에 제가 돈 모은 방법을 알게 된 남편은 당장 프러포즈를 했죠. 나의 알뜰함과 현명함에 반했다나요? 물론 결혼은 학교 졸업 후에 했지만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구요? 집안의 모든 통장은 저에게 맡기고, 재무관리는 저를 백프로 믿는답니다. 처녀적 그 경험이 그렇게 남편을 믿게 만들었나 봐요.

올해 결혼계획이 있으신 미혼여성 여러분! 제가 한수 가르쳐드렸으니 제 경험을 참고삼아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랄게요!

최승희_서구 검암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컴퓨터’

다음달 테마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창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2월 23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_440-2072>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모집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입학자격**
 - 신입학 – 중학교 졸업자 또는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 편입학 – 고등학교 중퇴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시험없음)
-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입학원서 1부 (인천여고에서 교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3매
 - 신 입 학 : 중학교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고입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 편 입 학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제적증명서 1부
- **원서접수기간** : 1월 29일(월)~2월 28일(수)
- **접수 및 문의** :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 (810-6341)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간석4동에 위치한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미술교육, 자격증과정 등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과정명**
 - 미술교육과정 : 미술치료 (1단계, 3단계, 4단계), 서양화, 사진영상, 플래위디자인과 전례꽃꽂이
 - 자격증과정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속독지도사
- **모집기간** : 2월 23(금)까지
- **교육기간** : 2월 26일(월)~6월 9일(토)
- **장소**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간석4동)
- **문의**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438-8131~4, www.iccu.ac.kr/life)



계양산 자연학교 모집

반딧불이가 살고 산정습지가 있는 아름다운 산, 계양산에서 생태공부, 놀이를 중심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나누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접수기간** : 2월 1일(수)~2월 28(수)
- **대상** : 일반 시민(학생 제외) 선착순 30명
- **교육기간** : 3월~11월 (월1회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장소** : 계양산 삼림욕장, 목상동 일대 습지
- **문의** : 인천녹색연합 (548-6274, www.greenincheon.org)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 **사회교육과정** : 자격증취득과정(국가자격, 대평교협자격, 민간자격 등), 전문과정(한국어교사양정과정 등), 창업특강(프랜차이즈구축과정 등), 교양과정(여성의 경조사매너 등)
- **시민대학(무료)** : 여성교양문화과정, 사랑방학교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 사회복지학전공, 경영학전공,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교양과목(결혼과 가정 외 32개 과목)
- **아동, 청소년교육과정** : 과학영재, 유아(어린이 영어교실 외), 유아초등(재즈&힙합댄스 외), 초등중등(바른 글씨 쓰기 외)
- ※ 세부내용은 입학안내서 또는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 2월1일(목)~2월28일(수) 까지
- **문의**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 (860-8292~6, <http://conedu.inha.ac.kr>)

인천대학교 인천시민대학 학생 모집

- **일반교육과정**(10개분야 총67과정) : 특별교육과정(부동산최고경영자), 정책교육과정(영어기초 외), 교양 및 문화과정(성공을 위한 자기관리 외), 건강관리 과정(에어로빅 외), 취미 및 여가선용 과정(서각 외), 어학과정(생활영어 외), 창업교육과정(이벤트플래위디자인 외), 전문교육과정(독서논술지도자 외), 아동교육과정(동화일러스트레이션기법 외), 국가자격증과정(컬러리스트 외)
- **학점은행제**(4개전공 및 교양 총88과목) : 사회복지학(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 17과목), 화훼학(꽃작품표현실습 등 18과목), 서양화(회화 등 16과목), 체육학(스포츠경영학 등 11과목), 교양(세계 신화의 탐구 등 26과목)
- **모집기간** : 2월 1일(목)~2월 23일(금)
- **교육기간** : 3월 5일(월)~6월 16일(15주)
- **교육장소** : 인천대학교 및 구월동캠퍼스
- **수강료**
 - 일반교육과정 : 100,000원~700,000원(과정별 전화문의)
 - 학점은행제 : 이론과목 150,000원, 실기과목 200,000원
-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수강료는 수강신청 당일 납부
- ※ 2개 과정 등록시 학습비가 많은 1개 과정 20% 감면, 시 관내 소속 공무원 20% 감면 단, 골프과정은 제외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및 방문접수
- **등록방법** : 온라인 무통장 입금(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자는 생략)
- **문의** : 인천시민대학 교학과 (441-5394~5, www.cecu.com)



설날 당일 차량통제 안내

우리 민족 최대의 민족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인천 가족공원(구 부평묘지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여러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날 당일은 인천가족공원 입구에서부터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께서는 설날 당일이 아닌 설날 전후(2월 17일 및 2월 19일)를 활용하시어 즐겁고 편안한 성묘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지하철 :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삼거리역

– 시내버스 : 2, 20, 30, 34, 45번

– 좌석버스 : 111번

– 마을버스 : 539번

■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3952)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중국통상CEO과정 (제8기) 신입생모집

본 과정은 기업인들의 중국으로 성공적 진출을 돕고자 개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인원** : 00명
- **수업형태** : 년 과정 2학기제(야간), 매주 월요일 OFF-LINE 강의 (중국어회화 : 오후 6시~7시, 초청강의 : 오후 7시~9시 40분)
- **지원자격** :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관리자, 기타 중국에 관심이 많으신 분(학력제한 없음)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본인사진(반명함판) 3매
- **원서교부 및 접수** : 2월 1일(목)~2월 22일(목)
- **문의**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3)

2007년도 도로교통안전 홍보작품 현상모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개선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 담긴 홍보작품을 현상모집 합니다.

■ **응모대상** : 사진, 표어, 포스터, 광고, 플래쉬 (포스터는 어린이, 청소년 분야로 모집)

■ **모집기간** : 3월 30일까지

■ **시상내용** : 최우수, 우수, 장려 각 상장 및 상금(15~200만원)

■ **입상자 발표** : 4월 30일 이내(입상자 개별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 게재)

■ **접 수 처** : (우)100-789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홍보관리팀

■ **문 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830-6162, www.rtsa.or.kr)

미추홀문화회관 수강생 모집

새싹이 파릇하게 움트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여 실생활과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강좌 위주의 다양한 강좌와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무료 강좌 개설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정식 요리 특강과 무료 가족 영화 감상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설하였습니다.

■ **접수기간** : 2월 12일(월)~3월 10일(토)

■ **강좌기간** : 3월 5일(월)~5월 26일(토)

■ **장 소** : (신)중구보건소 4층 미추홀문화회관

■ **대 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

어린이(한자, 중국어, 멋지고 신나는 요들나라, 어린이 교육연극 & 뮤지컬), 성인(서예 교실, 유화 쉽게 배우기, 성악 초급, 인천향토 춤 사위, 수필창작 & 도덕경, 디캐! 필캐! 사진 촬영, 일어 회화, 중국어 회화, 실버한국무용, 생활원예, 대생 & 수채화 & 인물화, 프레스플라워-압화, 주부 연극 교실 등)

■ **무료 가족 영화 감상교실**

3월 20일(화) 오후 4시 30분~오후 6시

■ **무료 성인 공개 강좌**

예쁜 손글씨 POP 배우기, 음악을 잘할 수 있는 방법과 처음 배우는 악기 선택법,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섹시 뽀리 댄스, S라인을 위한 직장인 뽀리 댄스, 재즈 다이어트 댄스

■ **행복한 가정식 퓨전 cooking**

(3월 봄 나물 & 밑반찬 만들기, 4월 피크닉 Set 특강 5월 가정 특선 요리)

■ **정규강좌 안내**

공예, 미술, 무용, 음악, 어학, 교양, 건강, 스포츠, 미용, 창의력 계발, 학습 계발, 임신부, 전문인 양성반, 창업반·요리



■ **봄맞이 단기특강 & 무료 1일 특강 & 어린이 무료 공개강좌**

■ **문의** :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www.mchart.co.kr)

개인 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

인천지방법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을 하시는 분을 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회생 소송 구조제도란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서민의 경제적 새 출발을 돕기 위해 개인파산·회생 제도를 두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일종의 장벽이 되고 있어 신청인이 편리하게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소송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모·부자가정 증명서)
 - 70세 이상 자 (주민등록등본)
-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에 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공고료, 송달료 등은 본인이 부담
- **소송구조 변호사 선정**
인천지방법원은 10명의 변호사를 소송구조지정변호사로 위촉하여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촉된 10명의 변호사 중 1명이 선정됩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 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변제계획포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 개인파산·회생 신청에 관한 필요한 양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incheon.scourt.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지방법원 (860-1113~4)

2007년도 무용교실 열립니다

인천시립무용단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07년 무용교실(상반기)을 개최합니다. 무용교실의 수준을 초급반과 작품반으로 구분하여 기초부터 작품에 이르기까지 단계 구성에 차등을 두어 폭넓은 한국 무용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일시** : 3월 6일(화)~6월 26일(화)
매주 화요일 1회(총16회) - 초급반 A / 초급반 B / 작품반
- **장소** : 인천시립무용단 연습실 I, II
- **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일반시민
- **접수기간** : 2월 26일~28일(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방문 (1반에 선착순 50명)
- **문의** : 인천시립무용단 사무실(438-7774, 420-2788)



여성복지관 저소득 아동 심리치료합니다

여성복지관에서는 가족관계 및 사회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동 심리치료 사업을 실시합니다.

- **모집기간** : 연중
- **대상** : 문제행동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아동(초등학생, 기초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등)
- **문제유형** : 정서불안정, 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 학교생활 부적응, 가출, 도벽, 폭력 등
- **치료유형** : 미술심리치료
- **치료내용** : 심리검사 및 아동 심리치료
- **치료비용** : 무료
- **접수방법** : 전화 및 내방
- **접수 및 문의**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상담실 (434-6436~7, 434-0182)



계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회원 모집합니다

계양시니어클럽은 2004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니어클럽(구,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에 맞는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계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회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 계양구에 거주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며 신체건강하신 60세 이상의 어르신
- **활동지역** : 계양구 내 초등학교 교실
- **주요역할** : 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청소 및 정돈
- **참여절차** : 신청 자격심사 선발 교육 참여
- **문의** : 노인일자리사업팀장 김보라 (555-6330)



인천월드컵경기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인천월드컵경기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보조경기장트랙 및 체육공원 무료 개방 (잔디사용금지)**
 - 하계(3월~10월) 오전 5시~ 오후 11시
 - 동계(11월~ 2월) 오전 6시~ 오후 11시
- ※ 주말농구교실의 경우 접수 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인천월드컵경기장사업단 (456-3020, 3026)

프로그램	운영장소	운영시간	강습요일	비고
유소년 축구클럽	보조경기장	1월~12월 저학년반 : 17시~19시 고학년반 : 17시~19시	월, 수 화, 목	유료
주부 자전거교실	야구장 1층	3월~11월 오전 : 10시~12시	월~금 (10일2주)	유료
주말 농구교실	경기장내 체육공원	3월~12월 오후 3시 : 10명, 오후 2시 : 10명	매주 토요일	유료
단학기공	보조경기장	4월~10월 새벽 : 6시~7시	월~금	유료



우리말 ‘뚝’ 바로 알기

방의 넓이? (○) / 방의 너비? (X)

‘방의 너비가 손바닥만 하다.’에서 ‘너비’는 ‘넓이’로 써야 합니다. ‘넓이’는 평면으로 된 물건의 가로와 세로를 곱한 크기를 가리키고, ‘너비’는 물건의 가로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가령 천의 가로 길이는 ‘너비’라고 하고, 천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곱한 것은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종목의 하나인 ‘넓이 뛰기’는 ‘멀리뛰기’ 또는 ‘너비 뛰기’가 맞고, ‘넓이가 넓다’와 ‘너비가 길다’로 구분하여 씁니다.

이달의 국가유공자 신태호(申泰鎬)



신태호(1927. 09. 18~)는 1927년 출생하여 함흥공업중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6월 북한 공산군의 불법남침이 발생함에 따라 1950년 8월 초 공산군에 의해 철수중인 보병 제1단 12연대 3대대(삼랑진)에 입대하여 복무하였다.

유엔군의 복진과 함께 평안북도 운산까지 진격 중 예기치 못한 중공군의 개입으로 평안도 황해도 등지에서 전투중 수차에 걸쳐 포위망을 돌파하였다. 남하하던 중 1950년 12월 초순경 지역 치안계 및 각급 반공단체들과 합세하여 저항하였으나 역부족으로 황해도 서해안 강화 교동섬으로 철수하였다. 1951년 1월 ‘타이거 여단’이란 이름으로 군번도, 계급도 없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소총이나 폭

발물만 지니고 적의 군사시설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폭파시키고 흉탄에 맞아 피흘려 쓰러져 갔던 것으로 알려진 8240부대에 합류하였다.

그는 타이거여단 1연대 3중대장직에 부임하여 그동안 북한군 중공군과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부대원의 교육훈련은 물론 유격부대의 각급상륙작전 첩보, 침투, 심리교란, 적의 후방시설 파괴, 요인납치, 암살등 작전을 전두 지휘하여 북한 및 중공군의 전선투입 병력의 중간차단 작전에 일익을 충실히 충족시켰다.

신태호는 1953년 7월 휴전과 동시에 육군중위로 임관, 1954년 2월 16일 1102 야공단 편입근무중 1959년 12월 예편하였고 현재 사단법인 세계침련 대한침구사 협회장으로 극빈환자에 대한 의료봉사에 진력하고 있다.

자료제공_인천보훈지청(430-0125)

맛이 좋아 물고기 중 넘버원
숭어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숭어는 성질이 의심이 많아 화를 피할 때 민첩하다. 맛이 좋아 물고기 중에서 제1이다.’라고 하였다. 일본 에도시대에 성게, 해삼 창자젓과 함께 ‘천하의 3대 별미’로 꼽힐 만큼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았던 물고기이다.

숭어는 몸의 길이가 30~50cm에 이르는 것들은 흔히 볼 수 있고 때로는 80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10, 11월이 알을 낳는 시기로, 봄에 30~60mm쯤의 새끼들이 강의 하구에 나타나고 그것들이 종류까지 올라가면서 차츰 자라다가 가을에는 바다로 내려간다.

살이 오른 숭어에는 각종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 즐겨 먹으면 피로회복에 좋다. 껍질엔 세포 재생에 관여하는 비타민인 나이아신이 넉넉히 들어있고, 철분이 많아 혈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들어 있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을 예방해 준다. 한방에서는 숭어를 어떤 약과도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친다.

숭어는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분포하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강화 창후리 포구에서 많이 잡힌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http://www.dcake.co.kr>



2007년 정해(丁亥)년은
모두 따뜻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보의 하루는 올해도 변함없이
가장 좋은 원료만을 엄선해
특별한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문의전화
1544-1582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해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 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해드립니다.